

Sulwhasoo

VOL.73 MAY/JUNE 2016

Sulwhasoo

Sulwhasoo





은자 / 이일순
캔버스에 아크릴, 51×51cm, 2007

몇 그루의 나무, 하얀 의자, 집, 첼로, 그리고 정의 내리기 모호한 동물 한 마리가 그림 속에 있다. 그림 속 풍경은 바람이 멈춘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작가가 추구하는 오브제들을 이렇듯 정지된 풍경 속에서 연계성 없어 보이지만 서로를 강력한 연결고리로 묶고 있으며 작가가 추구하는 '초현실주의'라는 작업의 범주 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떤 소리를, 무슨 노래를 듣는가는 보는 이의 몫이 된다. 그림을 푼 하고 털어 내면 '동시' 한 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시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 절제되고 압축된 화면 그리고 고운 파스텔 색채를 바탕으로 작업하는 이일순 작가는 현실이 아닌 꿈의 세계, 비밀스럽게 폐쇄된 자아의 내면 공간 그리고 저 너머 낯선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표지로 소개된 〈은자〉는 물론 인 〈잠〉, 〈여행자〉, 〈여행〉등의 제목이 말해 주듯 꿈과 환상의 무의식의 세계에 심취했던 초현실주의자들처럼 작가 역시 몽환적인 이상향, 즉 현실에서 꿈꾸는 파라다이스를 추구하고 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작가의 바람은 간결하다. 그림을 통해 위로, 치유,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보는 이들과 소통하고 싶은 것이다. 에디터 권자에

A number of trees, a white chair, a house, a cello, and an ambiguous-looking animal are in the painting. The view in the painting makes you feel as if the wind has stopped. The artist's objects do not seem to be related in this still landscape, but they are tying each other with powerful and invisible links, while dancing and singing in the artist's world of 'surrealism'. It is up to the viewers as to which sounds or songs they hear. Artist Il Soon Lee works with lyrical and surreal images that seem to reveal a piece of the 'children's poem' if you remove the artwork, the moderate and compressed compositions, and fine pastel colors. She pursues the world of dreams beyond reality, the internal space of ego that is secretly closed, and the foreign world beyond the horizon. From "The Hermit" on the cover to "Sleep", "The Traveler", and "Traveling", all of her creations followed a surreal ideal, or a paradise dreamt in reality, as did all the other surrealists who were immersed in the world of dreams and fantasy. It may seem difficult, but the artist's wish is simple. She wants to convey the messages of consolation, remedy, and hope to her vie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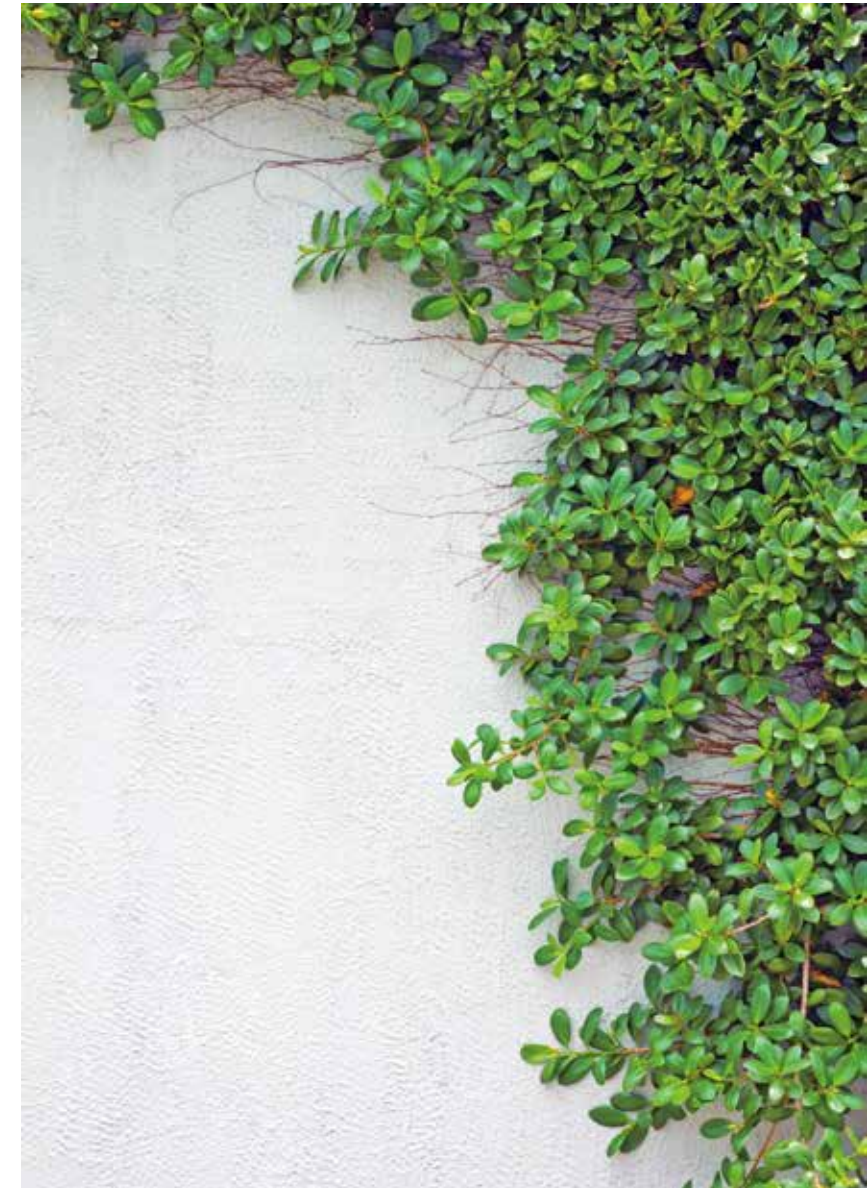
Sulwhasoo

MAY/JUNE 2016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6,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73 MAY/JUNE 2016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품격 있는 삶
한 그릇에 담긴 지혜
- 12
피부 섬기기
찬란하게 빛나는 절정의 윤기
-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영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을 탐구하다
- 22
新 공간을 보다
공장과 숲 사이 성수동 골목길
- 28
건너다
쌓여진 시간의 켄만큼 깊이 있는 아름다움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재현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기획 및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윤희
발행일·2016년 5월 2일(통권 제73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사빛그래픽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꽃 피어나는 삶, 참 고운 이 여자
- 44
어우러지다
아이디얼 예술 작품, 생활 속에 스미다
- 50
설화풍경
피고 지는 꽃에 드리워진 또 다른 생명의 향기
- 54
설화보감
잘 익은 매실 하나로 건강나다
- 60
아름다운 기행
시간의 경계를 무색케 하는
천년 고도로의 여행, 경주 & 교토
- 66
설화수를 말하다
격이 다른 솔루션으로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성 피부를 완성하다
- 72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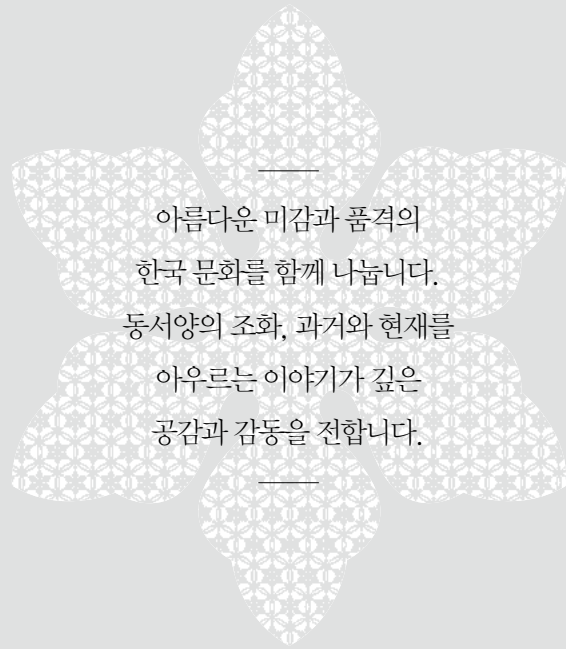


익 히 다

- 76
배움의 기쁨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시간
- 80
한국의 멋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선비 가구
- 82
설화애장
아름다움을 즐기는 자세
- 84
읽다
아름다움이 영롱하게 빛나는 곳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 88
집 안 단장
5월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 90
몸 단장
형형색색 무늬로 말해요
- 92
설화 히스토리
자음단™ 피부 균형을 완성하는 귀한 처방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한 그릇에 담긴 지혜 Wisdom in a bowl

우리 조상들은 식품이 가장 값싸고 신선하여 영양가가 가장 높을 때 시절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시절 음식 한 그릇에는 자연과의 조화, 우주 생명의 이치가 녹아들어 있다.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계절과 절기에 맞춰 먹는 시절 음식엔 옛사람들의 웅숭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여름 음식의 시작으로 꼽히는 단오(음력 5월 5일) 수리떡부터가 그렇다. 이 떡은 쑥잎과 멥쌀가루를 반죽해서 만드는데, 한의학에 따르면 단오 무렵의 쑥이 일 년 중 약성이 가장 좋다고 한다. 둥근 수레바퀴 모양의 수리떡을 한자로는 ‘차륜병차輪餅’이라 부른다. 단오의 별칭인 ‘수릿날’이 바로 이 수리떡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단오 음식은 제호탕醞飴湯이다. 다양한 한약재들을 곱게 갈아서 꿀을 넣고 증탕으로 달인 다음 응고시켰다가 차가운 물에 타서 마시면 그해의 삼복더위를 거뜰히 견뎌준다고 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최고급 청량음료였던 셈이다. 중국에는 춘추시대부터 단옷날 종즈粽子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 기장쌀을 닮은 풀잎으로 싸서 쇠뿔 모양으로 만들어 찌거나 대나무 통에 쌀을 넣고 밀봉하여 찌낸 것인데,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 지역까지 널리 전해져 지금도 아시아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나 중국과 달리 일본에

The seasonal food of Korea preserves the thoughtful wisdom of the people who maintain a traditional way of living. First, there is Suriddeok (rice cake) during Dano (May 5 of Lunar Calendar), which is considered as the first food of summer. This rice cake is made with mugwort leaves and rice flour. According to Korean Medicine, mugwort has been strongly used as a medicine during Dano. Another famous dish during Dano is the Jehotang (醞飴湯). Various traditional medicinal herbs were finely ground, brewed in a double-boiler with honey, and condensed into a jam. When dissolved in a glass of cold water and ingested, it would help you endure the heat of summer. It was the best refreshing beverage that was both tasty and healthy. China has a tradition of eating a customary food called Zongzi (粽子) on Dano during Spring and Autumn Period. It is a proso millet wrapped in broad leaves and molded into the shape of a cone and then steamed, or rice sealed and steamed in bamboo containers. It has been widely used in Korea, Japan, and many countries in Southeast Asia. It is still served to many Asians today. Unlike Korea and China, Japan celebrates Dano on May 5 of the Gregorian calendar. Fami-



도석 백자 합과 겹쳐진 불은 청송백자. 그린 스트라이프 백자 진은 이인화 작가 작품으로 LVSK래프트, 월넛과 백자로 제작된 청화소반은 양웅걸 작가와 박선영 작가 작품으로 www.woonggul.com.

서는 양력 5월 5일이 단옷날이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자손들의 번창을 기원하며 떡갈나무 잎으로 싸
'가시와모찌(柏餅, かしわもち)'를 만들어 먹는다. 에도 시대 때부터 전해진 오랜 풍습이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유트날(음력 6월 15일)에는 유두면, 상화병, 보리수단 같은 시절 음식들이
백성들의 지친 몸을 추슬러주었다. 유두면은 햇밀가루에 닭고기를 넣어 만든 국수이고 상화병은
밀로 만든 떡이다. 밀가루를 막걸리로 반죽해서 부풀게 한 다음 팥, 채소, 고기 볶음 같은 소를 넣고
시루에 찌면 '서리꽃떡'이라는 멋들어진 이름의 상화병霜花餅이 만들어진다.

밀에는 트립토판(Tryptophan)이라는 아미노산이 다른 곡류보다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성
분은 생기와 의욕을 북돋우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다고 하니 한여름에 제격이다. 유트날 쌀 대신
밀로 떡을 찐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햇보리와 오미자를 우려낸 물에 꿀을 넣어 만든
보리수단 역시 여름나기에 단단히 한몫을 했다. 오미자에는 40여 종의 리그난(Lignan : 항암 및 항
산화제 효과가 있는 식물성 천연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간 보호와 피로회복에 뛰어난 효험이 있다
고 한다. 여름철에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도 보리수단의 역할 중 하나다.
이렇듯 옛사람들은 제철 재료들로 그 계절에 꼭 필요한 '스태미나 식품'과 '기능성 음료'들을 척척
만들어냈다. 농경민족의 안목과 지혜로 빚어내던 한반도의 시절 음식들.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 물
론이고 생김새와 이름까지도 두루 아름답던 그 음식들을 두고 오늘날 우린 과연 어떤 음식들을 먹
고 있는지. S

lies there pray for the prosperity of their descendants and make Kashi and Mochi (柏餅, かしわもち)
that are wrapped in oak leaves. It is a traditional custom handed down since the Edo period.

On Yudu (June 15 of the Lunar Calendar) when the heat of summer reaches its peak, the sea-
sonal menus, such as Yudumyeon, Sanghwabyeong, and Borisudan, revitalize the weary people.
Yudumyeon is a noodle dish prepared with fresh wheat flour and chicken. Meanwhile, Sangh-
wabyeong (霜花餅), also known as Seoriggotddeok, is a wheat cake made of wheat flour that has
risen with Makgeolli yeast and steamed with red bean, vegetables, and stir-fried meat fillings.

Wheat has the richest source of amino acid called Tryptophan among all grains. This sub-
stance is great for midsummer as it helps with the generation of serotonin that enhances vital-
ity and passion. There was a reason why wheat cakes were made instead of rice cakes on Yudu.
Borisudan, which is fresh barley tea, and Schisandra chinensis with honey, were also popular
food during the summer. Schisandra chinensis contains approximately 40 kinds of Lignan
and is excellent for protecting the liver and relieving fatigue. Borisudan also replenishes the
moisture and electrolytes that your body loses in the summer heat.

The traditional people excelled in using seasonal ingredients to create stamina food and func-
tional beverages that are essential for each season. The Korean Peninsula food are prepared with
the insights and wisdom of the agricultural people. What we are eating today besides these foods
that are tasty, healthy, and attractive based on appearance and name, is something to think about.



연한 민트 유리 볼과 플랫한 접시는 초지 카즈미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그린 볼과 파스타볼 접시는 라 메디테라네아 by 스마일리지

찬란하게 빛나는 절정의 윤기

The unparalleled radiance and splendor

브랜드만의 新기술력으로 보다 강인한 효능을 피부에 전달하게 된 자음단™과 세대를 거듭할수록 시대를 아우르는 명품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윤조에센스, 설화수를 대표하는 원료와 제품으로 압도적인 윤의 절정을 선사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일러스트 임성규

모든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고 강인하게 보듬어주는 최고의 다섯 가지 원료, 설화수 자음단™의 탄생은 인고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노력과 브랜드 과학의 결과물이다. 1987년, 고서를 조사해 피부에 이로운 500여 종의 물질을 찾아냈고, 오랜 임상 실험을 거쳐 2만여 가지 한방 성분 중에서 3000가지를 추려낸 후 최종적으로 30가지를 선택하였다. 이를 다시 오행의 기운과 성질에 맞게 분류한 연, 작약, 옥죽, 백합, 지황으로 엄선한 것이 바로 자음단™인 것이다. 이러한 자음단™에 다시 한 번 브랜드 기술력을 더하며 강력한 효능을 선보이게 되었다. 약재를 분쇄하기보다는 썰어서 가공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능 성분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혜에서 개발된 프렉스트랙트 프로세스™(PREXtract Process™)로 자음단™ 각각의 원료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최대한 추출하게 된 것. 기존 자음단™ 대비 유효 성분의 양이 180퍼센트 증가함은 물론 재생, 생기, 영양, 투명, 탄력이 1.4~1.9배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보다 파워풀해진 자음단™으로 피부는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The birth of Sulwhasoo JAUM Balancing Complex™ with five precious ingredients, which treat and fortify the essential cause of skin aging, is the result of hours of endurance and brand science. The Sacred Lotus, Peony, Solomon's Seal, White Lily, and Rehmannia were strictly selected according to the energies and characters of the Five Elements that produced the JAUM Balancing Complex™. The brand's technology has been added to the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to make it even more powerful. With the PREXtract Process™, which was developed with the wisdom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chop the herbs for processing rather than to pulverize them, has extracted as much effective substances as possible from each ingredient of the JAUM Balancing Complex™. This has not only increased the amount of the effective substances by 180%, as compared to the previous JAUM Balancing Complex™, but it has also enhanced the effect on 'Regeneration, Vitality, Nutrition, Clarity, and Resilience' by 1.4 to 1.9 times. The improved JAUM Balancing Complex™ will rejuvenate the skin, as well as provide it with incomparable strength.



흑유 정사각의 굽 있는 접시는 강유단 작가 작품으로 다이닝오브제



윤조에센스

스킨케어 첫 단계 에센스로
 산뜻하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모자람 없는 윤기를 선사하는
 윤조에센스 60ml/90ml

보다 파워풀해진 자음단™을 주원료로 품고 있는 윤조에센스. 더 이상의 수식어구가 필요 없는, 비할 데 없는 윤기를 피부에 전하는 첫 단계 에센스로 1997년 론칭하여 지금까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정 아름다운 삶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찾아오듯이, 피부의 아름다움도 균형에서 시작되는 법. 그러기에 윤조에센스는 자음단™으로 부족한 기운을 채워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주고 속부터 우러나는 윤기를 머금어 압도적인 윤의 절정을 실현케 한다. 이는 전 세계 여성들이 윤조에센스를 사랑하는 이유로, 보다 산뜻해진 텍스처, 글로벌 뷰티 마켓에서 찬사받고 있는 모던한 백자 모티프 디자인,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미용법 등을 통해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세계를 아우르는 명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embraces the improved JAUM Balancing Complex™ as the main ingredient. It was launched in 1997, and it is by far the No. 1 first-step serum that brings unprecedented radiance beyond description to the skin. A genuinely beautiful life is rare when you are barely in balance, but a beautiful skin is realized when it is balanced. Therefor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replenishes the skin's energy deficiency with JAUM Balancing Complex™, and restores the skin's balance and radiance from deep within. This is the very reason why women around the world lov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has become a global premium product with a fresh texture, the modern white porcelain design that is widely popular in the global beauty market, and the easy skincare tips that anyone can follow.

윤조에센스
 사용법
 How to us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Step 1
 양손을 비벼 따뜻한 온기를 만든 후 윤조에센스를 양 손바닥에 퍼 버린다.
 Rub hands together and spread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over palms.



Step 2
 양 손바닥을 모아 향을 맡으며 호흡을 차분하게 정돈시킨다.
 Gather both palms and inhale the fragrance to experience its relaxing effect.



Step 3
 볼, 이마, 눈가순으로 꼭꼭 눌러 내용물을 흡수시켜준다.
 Press over the cheeks, forehead, and eye area for absorption.



영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을 탐구하다

Yee Sookyung

이 수 경

유독 상상과 질문이 많았던 소녀는 말보다는 시각언어가 익숙한 작가로 성장했다. 전시 일정으로 작업실을 한동안 비울라치면 드로잉 도구부터 잔뜩 챙기는 것도, 무언가를 그리지 못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생긴 버릇이란다. 늘 질문하고 항상 그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는 요즘 어떤 상상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귀한 시간을 쓰고 있을까?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도움 주신 곳 국제갤러리



〈눈물〉, Stainless steel, LED1100x600x1700[h]cm, 2012

〈번역된 도자기〉란 작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란 단어가 떠올랐는데, 작가로서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주로 한국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치유란 단어가 마뜩하지 않다. 모든 존재는 완벽해서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도자기는 먼지였던 흙이 물로 이겨져 어떤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환장할 불 맛을 본 뒤 전혀 다른 물성을 얻는 과정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서사를 품은 존재가 된다. 비록 도예가의 손에 의해 깨짐을 당한 파편이라 해도, 용도폐기는 사람의 관점에서 비롯된 관념일 뿐 서사가 소멸되거나 존재가 부인당한 건 아니다. 따라서 파편을 모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과정은 ‘치유’라기보다 다른 방식의 ‘생존’이라고 보는 편이 진실에 가깝다.

왜 수많은 도공은 작가처럼 파편의 ‘생존’에 주목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래 가까운 것이나 관계엔 무심한 게 사람의 속성 아닌가. 나는 도자기와 가깝지 않았기에 깨진 도자기 파편에서 익숙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란 거다. 2001년쯤 김상옥의 ‘백자부란 시를 도자기로 빚어내는 일종의 ‘번역’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파편을 주목했고, 파편을 퍼즐처럼 맞추는 현재의 ‘번역’ 방식이 만들어졌다. 파편과 파편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긴 금을 금칠로 메운 건, 언어적 유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상처를 감추기보다 아름답고 도드라

Looking at your <Translated Vase>, it naturally reminded me of ‘healing.’ I wonder what you are thinking as the artist.

I get that a lot in Korea, but I personally do not prefer the term ‘healing.’ I believe that all entities are perfect, and do not need healing. Porcelain becomes an entity with a great epic beyond my capability when dirt is molded with water to create a certain form, and acquires completely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after it tastes fire. Even if it is a fragment that has been broken by the hands of an artist, the loss of purpose is only a concept from the human perspective. Its epic has not gone extinct, and its existence has not been denied. Therefore, the process of gathering the fragments to create an artwork is not actually ‘healing,’ but it is more like another means of ‘existence.’

I wonder why many porcelain creators have not focused on the ‘existence’ of fragments as you do. Aren’t people usually indifferent about what or who is around them? I was not familiar with porcelain at first, but I discovered an unfamiliar beauty in a broken piece of porcelain, and was startled by it. It was around 2001 when I came across a fragment through a form of ‘translation’ work by

지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 물론 각각의 파편이 하나의 독립된 서사 구조를 가진 하나의 엄연한 세계란 점도 강조하고 싶었다.

소재 측면에서 볼 때, 도자기와 경면주사 등 전통 혹은 종교적 분위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의도적 선택인지요? 나의 작업은 구체적 계획으로 결과물을 향하는 계산된 행동이 아니다. 과정 속에서 생각의 물꼬가 바뀌고, 이질적인 것들이 융합되고 둔갑하는 예측불허의 시간이자 믿음의 변식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나의 예술 행위를 잘라 말하면, 나의 영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모든 존재가 완벽하다고 말한 까닭도 사물마다 고유의 영성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사회적 이슈나 메시지가 강한 작업을 할 때도, 지극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영성에 호소하는 아름다움이다. 내용도 모르는 오페라를 보면서 눈물을 쏟는 건, 우리의 영성이 자극됐기 때문이지 않은가.

유명 작가는 자신의 대표적 작업 방식에 구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타고난 기질이 새로운 매체를 시도하거나 배우는 데 두려움이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무용과 정가 正歌를 배웠고, 올해부터는 서예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무명 시절, 다양한 매체를 실험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후자는 나의 그런 시도를 산만하다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되었고 덕분에 나의 사유와 노동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최근 10년 동안 마치 수험생처럼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니, 친구가 사라졌다(웃음). 해서 가끔 한가해지면, 친구 대신 책을 집어 든다. 요즘엔 음양오행 같은 동양 고전을 탐구하는데, 24절기를 형상화해보고 싶어사다. 그런 관심 탓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자꾸 관심이 '근본'에 쏠린다.

creating porcelain based on Kim Sang Ok's poetry, titled <White Porcelain>, and developed today's 'translation process' by solving the puzzle out of the pieces. I filled in the gaps along where the pieces meet with gold lacquer not to hide the wounds, but to make it more beautiful and more prominent, as much as it was a play on words. Of course, I also wanted to emphasize that each fragment is clearly an independent world that is an epic in and of itself.

In terms of materials, I cannot help relating the porcelain and cinnabar to a traditional or religious mood. Was this intended? My work is not a calculated move that follows a specific plan to create outcomes. It involves an uncertain time and a proliferation of faith where the track of thoughts change throughout the process, and heterogeneous objects combine and transform. I would say this process of art-making is the way how I seek my eternal spirit. I said that all entities are perfect because I believe that all objects have their original spirits. Even when I work on pieces with strong social statements or messages, I pursue supreme beauty. Here, beauty is not a visual image, but it appeals to the eternal spirit. You can burst into tears at an opera that is sung in a different language because your eternal spirit is touched by it.

Renowned artists tend to be restricted by their leading method of work, but you seem to be free of that. Fortunately, I am not born with fear when it comes to attempting or learning about new media. I have learned Korean dance and Jeongga in the last few years, and I am planning to learn calligraphy this year. I am thankful that I had opportunities to try different media when I was relatively unknown. Some criticized that they were too distracting, but they have become my identity, and they help align my thoughts with my work. I have gone through so many different challenges



<번역된 도자기>, Installation view of CERAMIX: Art and Ceramics from Rodin to Schütte, 2016
<번역된 도자기>, Ceramic shards, Epoxy, 24k gold leaf63x63x64(h)cm, 2011



Installation view of When I Become You, Daegu Museum of Art, 2015
 〈진생퇴행그림〉, Acrylic on canvas, 91x117cm, 2014 〈진생퇴행그림〉, Acrylic on canvas, 89.5x130.5cm, 2014

근본이란 단어가 나왔으니, '한국의 美'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 시대가 아닌 그 이전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크다. 이를테면, 신라의 금관이나 고려청자가 그것이다. 하지만 '한국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끌리지만, 사라짐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마치 어떤 생명체가 도태되고,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처럼. 해서 전통을 박제화하고, 조악하게 관광 상품화하는 일에 반대한다. 내 작품에서 발견되는 한국적 요소라 불리는 것들이 '정말 한국적인 건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나의 어떤 작업에는 숨어 있다. 전통이든 현대든, 한국적이든 아니든, 지독하게 아름다운 것은 누구에 의해서든 소유되고 보존될 것이다. 부디 나의 작품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스미어 있었으면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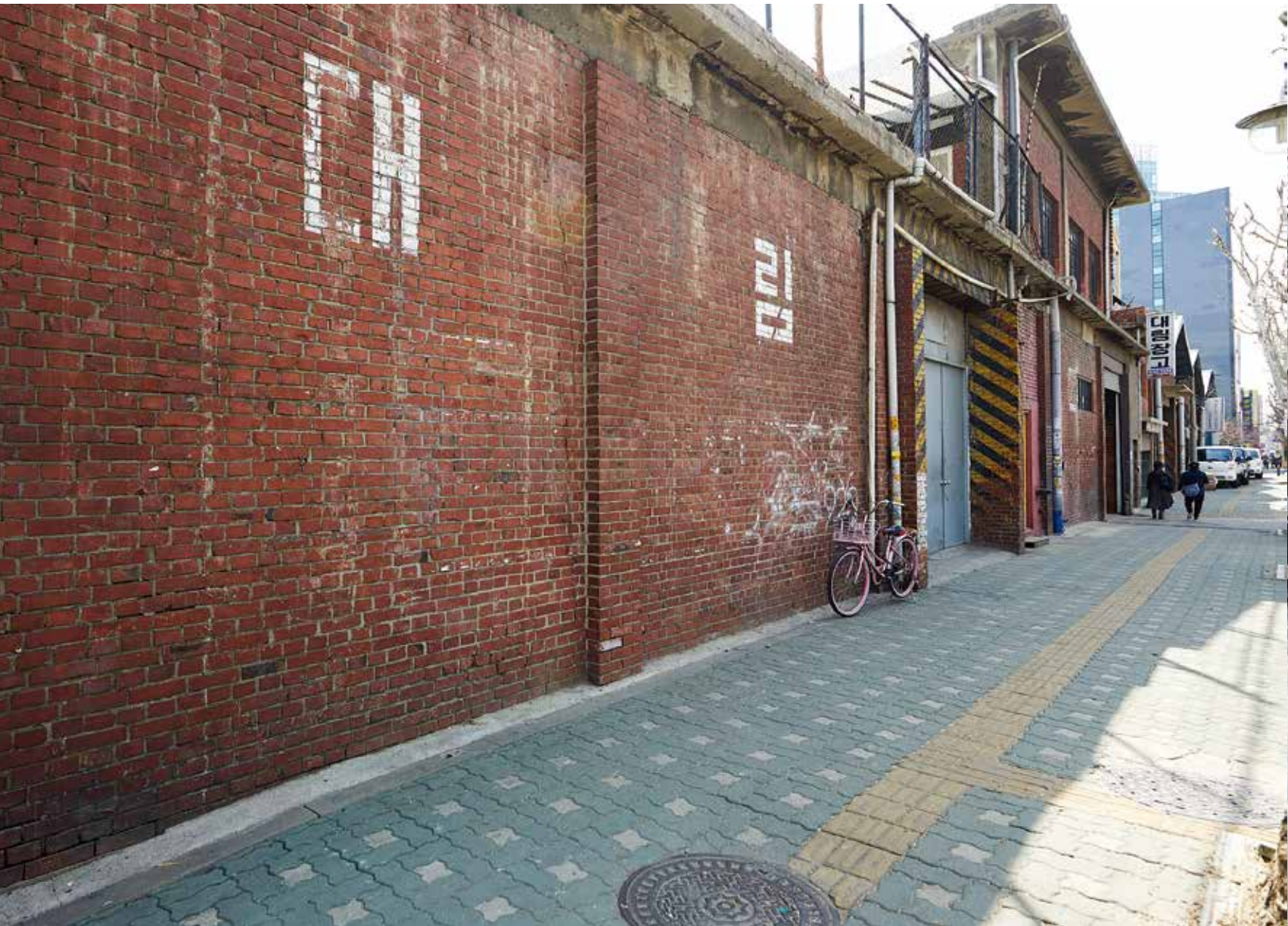
작품이 런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었다는 소식에 어떤 감회가 들었는지요? 잘라 말하면, '아! 점령했다'였다. 명예욕이나 과시욕 때문이 아니라 예전부터 세계적 미술관의 한국관, 먼지가 켜켜이 쌓인 골동품 곁에 내 작품이 마치 '손자'처럼 끼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엔 전시활동이 잦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유독 전시가 많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해서 올해엔 미뤄던 작업에 집중할 생각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남 강진과 해남에서 하게 될 비디오 작업이다. 예전, 잔치란 건 사대부 양반이 주인이 되어 상을 차리고 소리꾼들을 불러 노는 거였다면, 내가 할 작업은 상다리 휘어지게 한 상 차려놓고, 기예를 가진 분들을 초대해, 자연스럽게 소리하고 춤추는 장면을 담는 거다. 부디 남도 풍류의 진면목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S

in the last 10 years that I have lost all my friends (laughs). So when I have free time, I pick up a book instead. Nowadays, I am exploring the Oriental classics, such as the Yin, the Yang, and the Five Elements, because I want to visualize the 24 solar terms. It may be because of my interest, or my age, but I am constantly attracted to the 'essence.'

Now that you have mentioned the 'essence,' I would like to hear your thoughts about 'the beauty of Korea.' Personally, I am deeply interested in Korean history and culture before the reign of the Joseon Dynasty, like the golden crown of Silla or the celadon of Goryeo. However, I am not sure what actually is 'something Korean.' I am attracted to the disappearing traditional culture, but wouldn't there be a reason why it is disappearing, like a species has fallen behind and is being replaced by other species? That is why I am against putting tradition in a frame, and creating low-quality souvenirs for tourists. Some of my works reflect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Korean elements in my works are 'truly Korean.' Be it traditional or modern, Korean or not Korean, anything that is supremely beautiful would be cherished and preserved by its owner. I hope my work possesses such beauty within.

You had several shows last year. I would like to hear about your future plans for now. I had so many shows last year, and thought 'I can't live like this.' So I will focus on the creative aspect this year. One of my plans is to work on shooting videos in Gangjin and Haenam in Jeollanam-do. In the past, a festival was hosted by a nobleman to set the table and hire singers for entertainment; now my job is to set the table, invite talented guests, and document their performances in a natural setting. I hope to capture the true taste of Namdo's style of entertainment.



공장과 숲 사이 성수동 골목길 Seongsu-dong passageway between the factories and forests

과거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서 인쇄 공장과 수제화 공장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체가 즐비하던 성수동. 2010년부터 젊은 예술가와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이 공장과 주택, 상가 등을 개조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성수동 골목길 한편에서는 트렌디한 패션쇼가 열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공장의 기계 소리가 울린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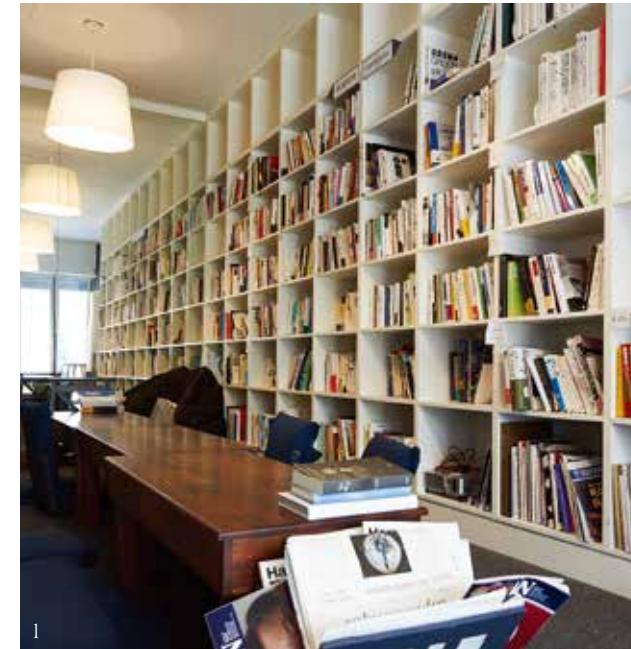
보관 창고는 트렌디한 행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수제화 장인은 수제화 공동 브랜드 매장에서 구두를 만드는 성수동의 달라진 풍경

성수동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독섬역, 서울숲 인근을 아울러 말한다. 1960년대부터 공업단지 로 조성돼 인쇄업, 가죽가공업, 철강업 등 제조 공장들이 모여 호황을 누리던 동네였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 위기를 맞은 공장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게 되었다. 대신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임대료 등의 이유로 젊은 아티스트들이 성수동에 작업 공간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골목길 구석구석에 갤러리, 스튜디오, 카페들이 모여들고, 주택가에 공방,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문화지대로 변모해 가고 있는 중이다.

성수역 1번과 2번 출구로 나가면 수제화거리를 만날 수 있다. 성수동은 우리나라 수제화 제조업체 의 70퍼센트 이상이 밀집한 수제화 1번지로 유명했다. 최근 거리 일대를 정비하고 구두테마공원을 개장하는 등 수제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수역 교각 하부 공간에는 '프롬에스에 스'라는 수제화 공동 브랜드 매장이 있는데, 국내 수제화 1호 명장의 숨을 비 롯해 오랜 시간 구두를 만들어온 장인들의 수제화를 만날 수 있다. 성수역의 3번 출구 쪽으로 나오면 성수동의 시간을 엿 볼 수 있는 인쇄소 골목을 만난다. 인쇄 공장을 개조해 만든 카페 겸 문화공간 '자그마치'는 인쇄소 였을 당시 사용했던 수납장이나 구조물을 그대로 남기고 그 위에 전시물이나 책, 식물들을 놓아두 어 현재의 이야기를 덧입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다. 한쪽에 설치된 프로젝터에서 흐르는 음악 과 영상은 과거와 현재의 감성을 교묘하게 교차시키고 있다. 자그마치를 지나면 낡은 벽돌 창고 건 물을 만나게 되는데,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대림창고'다. 1970년대에 정미소였던 공간은 이후 보관 창고로 이용되다가 헐릴 뻔했던 건물을 대부분 리모델링한 후 다양한 행사와 설 치미술 전시장, 화보 촬영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젊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예술 행사를 주도하고,

Seongsu-dong refers to Seongsu Station and Ddukseom Station along Subway Line #2 and around Seoul Forest. It is an industry cluster composed of factories for printing, leather processing, and steel processing that flourished in the 1960s. However, the factories have left the neighborhood one by one, along with the economic growth of the market. Young artists have established studios at Seongsu-dong to take advantage of its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affordable rents. Galleries, studios, and cafés have moved into the alley, and the ateliers and social corporations in the residential zones are transforming the neighborhood into a cultural sphere. The factories that stayed have created a unique sentiment for Seongsu-dong.

If you leave through Exit No. 1 or 2 at Seongsu Station, you will come across the handmade shoe street. The street has recently been renovated to open a shoe theme park that will help in supporting the handmade shoe industry. Beneath the Seongsu Station Bridge is a joint handmade shoe store called 'From SS'. Here, you can meet the store of Korea's first handmade shoe master and the handmade shoes of various experienced shoemakers. From Exit No. 3 of Seongsu Station, you will arrive to the printing street where you can observe the history of Seongsu-dong. 'Jageumachi', which is a café and cultural space that has renovated an old printing shop, has preserved the storage and structures that were used by the printing shop in order to display modern artifacts, books, and plants for a



1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로 책을 대여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라이브러리.
 2 인쇄 공장을 개조해 만든 카페 겸 문화공간 자그마치.
 3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현지 여성들의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펜두카.
 4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회 혁신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디벨 샵룸.



성수동
찾아가는 길

위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와 서울숲길 일대
대중 교통

- 지하철 2호선 성수역 2번 출구 방면은 수제화 거리, 3번 출구 방면은 자그마치와 대림창고
- 지하철 2호선 독삼역 8번 출구로 나와 길 건너 성수가 주민센터 골목 방면 또는 지하철 분당선 4번 출구로 나와 성수가 주민센터 골목 방면



클래식 공연과 파티, 명품 브랜드의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지는 등 넓고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트렌디한 행사와 공연들이 진행되면서 성수동의 인식을 바꾸어놓은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다. 대림창고 근처에는 금속 부품 공장이었던 곳을 개조해 만든 김정환 작가의 작업실이자 갤러리인 '베란다 인터스트리얼', 다양한 사진 전시가 이뤄지는 갤러리 카페 '사진창고' 등이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다. 서울숲을 끼고 있는 독삼역 부근은 공장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주택가이다. 성수역보다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골목길에는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나 공정무역 가게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다르지만 '맹목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공통의 신념을 가지고 활동한다. 주민센터를 오른쪽에 두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정무역 기업 터페이스스토리에서 운영하는 '펜두카'와 '스마테리아'를 만나게 된다. 펜두카는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현지 여성들이 직접 수를 놓아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그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하고, 스마테리아에서는 버려진 제품을 재활용해 만든 패션 아이템을 판매한다.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디웰 살롱'이 있는데 예술가, 브랜드 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회 혁신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공유하며 일상 속에서 영감을 주고받는 곳이다. 좀 더 건다 보면 마을, 이웃, 꽃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서울숲 조성과 관리, 꽃축제 등을 추진하는 '녹색공유센터', 골목을 돌아 나가면 무료로 책을 대여하는 작은 도서관이자 사회 혁신을 고민하고 토의하는 '이노베이션 라이브러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성수동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성수동의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S

- 1 숲을 만드는 의미와 즐거움을 배워 갈 수 있는 녹색공유센터의 외벽 장식
- 2 다양한 사진 전시가 이뤄지는 사진 갤러리 카페 사진창고
- 3 금속 부품 공장의 새로운 변신을 통해 아트 갤러리로 바뀐 베란다 인터스트리얼

unique view. If you pass Jageumachi, an old brick building for storage will show. This is the 'Daelim Storage', and it is one of the oldest buildings in the neighborhood. After it was used for rice milling in the 1970s, it was turned into a storage lot. It barely survived from being demolished, and the inside has been remodeled to create a place for various events, installation art exhibition space, and photograph studio. The Ddukseom Station area around Seoul Forest is a residential zone with only a few factories left. The alley has attracted social corporations and fair trade stores. These stores have their own unique activities, but their common business belief is 'not to follow blind profit'. If you enter the alley at the left side of the Civil Center, you will see 'Penduka' and 'Smateria' run by 'The Fair Story', which is a company for fair trading. Penduka sells hand-crafted items embroidered by women in Namibia, Southern Africa and uses the profit for their independence. Meanwhile, Smateria recycles discarded products in order to create new fashion items. If you follow the alley, there is 'The Well Salon' where start-up business owners, artists, and brand marketers, among others, gather to share inspirations for innovative programs and contents for a better future. If you go further inside, you can also visit the 'Green Sharing Center', which promotes programs for the village, neighbors, and flowers, manages the Seoul Forest, and hosts flower festivals. Around the corner is 'Innovation Library', which is a small library that lends books for free and discusses social innovation. The wind of change is creating a new purpose for Seongsu-dong.

쌓여진 시간의 쉼만큼 깊이 있는 아름다움
Beauty with depth similar to
the passage of time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 안에서 은은한 향기와 진중한 제품력으로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설화수.
세계 모든 브랜드들이 밀집되어 있는 북경에서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글로벌한 브랜드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코비스





도시에 맑고 깊은 생명력을 전하다

3000년 역사의 숨결이 짙게 배어 있는 중국의 수도, 북경은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일컬어지는 만큼 빌딩으로 군집을 이룬 마천루 사이에서도 오랜 문화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명승과 고적이 도시 안에 산재하는데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였던 만리장성과 옛 왕궁의 위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자금성의 스케일에 압도당하고 나면, 서태후의 아름다운 여름 별장인 이화원과 향산공원, 외불사의 수려한 경치에 마음을 뺏긴다. 짙은 역사의 향기를 고스란히 보듬으며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는 도시는 낡은 익숙함과 더불어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하다. 이렇듯 문화와 경제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북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단 하나의 독보적인 뷰티 브랜드, 설화수다. 한국 문화의 기품 있는 아름다움과 진정성 담긴 제품력으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강인한 한국의 미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산지가 도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기에 5월이 되면 나무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북경을 푸르게 만들고 설화수는 이런 도시에 맑고 투명한 생기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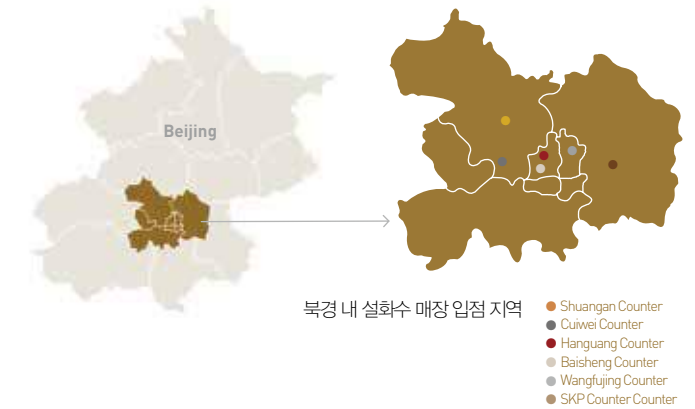
건축학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는 북경의 기하학적 건물들과 그 건물들 아래 전통의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골목길 풍경이 묘한 어울림을 전하고 있다.

Bringing forth a deep and clear vitality to the city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has a rich history of 3,000 years. It is often known as a museum in and of itself, and you will notice traces of the old culture amidst the clusters of skyscrapers. There are countless landmarks and relics throughout the city. After being intimidated by the scale of the Great Wall, which was the greatest civil construction of mankind, and the Forbidden City that still cherishes the dignity of an old empire, you will be captivated by the beautiful views of the Summer Palace (Yiheyuan), the charming summer vacation house of Xitaihou, along with Xiangshan Park, and Wofosi Temple. This city with its remarkable growth that is rich in history is filled with antiquated familiarity and new attractions. Beijing, which is the center of culture, economy, and education, has gained even more attraction through Sulwhasoo. It represents the powerful and dignified beauty of Korea and its authentic products that China has never witnessed before. The mountains encompass 1/3 of the entire city, the trees cover Beijing with different tones of green every May, and Sulwhasoo brings forth a clear vitality to the city.



설화수의 북경 진출을 상징하는 역사적 매장이기도 한 신평매장. 북경 시내 총 6개의 설화수 매장 중 매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여인으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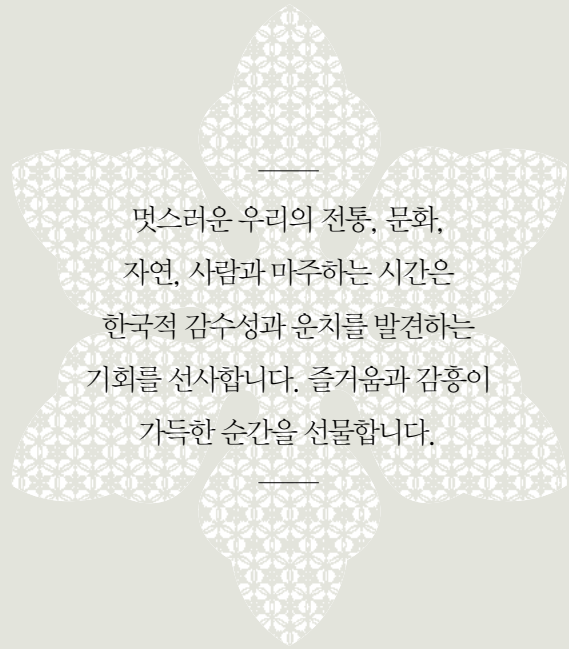
생활 깊숙이 파고든 설화수의 위용은 놀랍고도 놀랍다. 한국과 비슷한 사계절이지만 간절기가 되면 더욱 메마른 환경 탓에 피부 고민이 극에 달했던 터. 그런 그녀들의 피부에 범접할 수 없는 윤기와 생기를 전하고 있는 설화수는 쌓여왔던 고민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한 미래의 현답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보이는 아름다움 이상의 격과 기품을 선사하며 현명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 파워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SNS 유저들 사이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미의 덕목으로 꼽히고 있는 설화수. 이러한 설화수의 여러 제품 중에서도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발랐을 때만 반짝 힘을 발휘하는 타 제품과는 달리 피부 속에서부터 힘을 채워주며 피부 자생력을 길러주는 브랜드만의 제품력 때문. 또한 2016년 6월 북경 론칭을 앞두고 있는 퍼펙팅쿠션 브라이팅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진 보석처럼, 쿠션의 효능을 궁금해하는 이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북경 내 총 6개의 설화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매장에서는 전문 카운슬러의 어드바이스를 통해 피부에 꼭 맞는 설화수의 제품을 즉석에서 테스트, 구매할 수 있다. S

The first virtue of women

The power of Sulwhasoo in everyday life is truly amazing. China has four seasons similar to those of Korea, but the dry air between seasons may lead to more serious skin concerns. Sulwhasoo is delivering unprecedented radiance and vitality to women's skin. It is effective in resolving their skin concerns, and providing future solutions for a natural beauty. Sulwhasoo has been regarded as a virtue of beauty among the wisest opinion leaders, as well as the most powerful and influential SNS users. Among the many products of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are highly esteemed because they innovatively fortify the skin from deep within to encourage natural regeneration unlike other products that have fleeting efficacies. Perfecting Cushion Brightening, which is scheduled to launch in Beijing in June 2016, is currently receiving many inquiries from interested consumers as a treasure hidden in the Pandora's Box.

Sulwhasoo is currently operating six stores in Beijing, and professional counselors advise customers to test and purchase Sulwhasoo products that are perfect for their skin.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학

꽃 피어나는 삶, 참 고운 이 여자
The blooming life of a natural fair lady

Kim So Hyun

김 소 현

오랜 시간 그곳을 지키던 나무였지만 그날은 또 다르게 예뻐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자기 자리에서 늘 다르게 아름다운 게 소명인 듯 해마다 그래왔으니까. 그래도 그날 유독 가지 위
꽃이 고왔던 이유는 아마 꽃나무의 삶과 꼭 닮은 사람이 방문해서였을 것이다.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삼 년 만의 해후였다. 그때 김소현은 뮤지컬 〈엘리자벳〉을 연습 중이었다. 출산 후 첫 복귀작으로 부담이 큰 상태였다. “잘할 수 있을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의 것을 해낼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아요.” 아이 엄마가 되고도 여전히 예쁘게 찰랑이는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기며 진심으로 걱정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 고민에 싸인 김소현의 모습은 의외였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와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를 새로 쓴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 크리스틴을 시작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배우. 예쁜 얼굴과 예쁜 목소리를 타고난 부족할 게 없는 그녀에게 노력은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녀가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처음부터 다가져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얼마 전 전국 투어를 마친 〈명성황후〉도 노력의 산물이다. 20주년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18개 도시에서 올려진 공연은 10개월 내내 매진이었다.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는 정중하게 고사했어요. 너무 대작이고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이미 〈명성황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그 자리를 잘 지켜낸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주인공이 제목인 경우 정말 그 무게감이 달라요. 그러다 20주년 제의를 받고 용기를 냈어요. 의미 있는 공연이니 한번 해보자, 열심히 노력해보자 했죠.” 다행히 반응이 엄청났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김소현이 맡았던 배역 중 가장 잘 어울린다고도 했다. “연기의 폭이 넓어졌어요. 오랜 세월 못 하겠다고 애를 먹어서인지 끝나고 대표님이 ‘하길 잘했지? 거봐 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역할의 깊이도 남달랐고, 다른 관점에서 무대를 바라보게 됐고요. 무엇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배우로서 배움이 엄청났던 거 같아요.” 김소현의

Three years have passed. Back then, So Hyun Kim was rehearsing for the musical “Elisabeth”. She was worried because it was her first musical piece after childbirth. “Can I do it well? Can I put up a good performance? How can I do my best without disappointing the audience? I have so many thoughts in my mind.” I still remember how she talked about her concerns, while drawing back her long, beautiful, and sleek hair. I did not expect to see her so worried. S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Vocal Music, and she was always the top actress ever since she played Christine from “The Phantom of the Opera”, which is a historical piece in Korea’s musical industry. It seemed to me that she did not need to exert much effort with her beautiful looks and amazing voice. However, I knew at that moment that the reason for her success was her ceaseless effort to reach the top, and not because she had everything.

“The Last Empress”, which completed the grand national tour a while ago, was another result of her effort. It was performed in 18 cities, starting with the 20th anniversary performance, and it was sold out within 10 months. “When I first received the offer, I politely declined. It was a grand piece, but I did not even dare to accept the role. I was uncertain if I could fill the shoes of the actress who previously played the role of “The Last Empress”. When the main character is the title of the piece, the burden is incomparable. I summoned up my courage when I received an offer for the 20th anniversary. I told myself that I should go for it and make an effort since it was a meaningful performance.” Fortunately, it was a huge success. Some people said that this was the





〈명성황후〉에 대한 호평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다. 절정의 연기력, 최고의 기량 등 찬사가 쏟아져 나왔다. 노력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다음 작품으로 〈모차르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곧 연습에 들어가고 6월 10일부터 두 달간 공연해요. 〈명성황후〉 끝내고 잠깐 쉬었는데, 이제 다시 바빠지네요.” 그녀는 스스로 일에 중독된 것 같다고 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관객에게 그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이자 뮤지컬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요즘은 그 말을 자신의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 열심히 하자고 하죠. 나는 뮤지컬을 하는 사람이지만 뮤지컬을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정말 행운이 아니냐고 이 시간을 기쁘고 알차게 쓰라고 말해줘요.” 선생님 김소현은 매 학기 좋은 작품을 하나씩 공연하도록 한다. 〈맘마미아〉, 〈그리스〉, 〈레미제라블〉 등 알 만한 뮤지컬들이다. “일부러 좋은 작품을 많이 해요.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열정으로 무대를 만들도록 하죠. 결과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열심히 진심으로 배역에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무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고 싶어요. 그걸 통해 적어도 한 번 지나간 무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죠.”

배우의 노력은 ‘관객에 대한 배려’이다. 재능이나 인기로 기대어 관객을 소홀히 하는 배우에게 대중들은 상처 받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김소현은 언제나 진심으로 관객을 마주하는 속 깊은 배우이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이 배우는 자신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는다. 어쩌면 삶의 전반에 그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이를 향한 진심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저는 여자로서의 제가 좋아요. 성차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미로 ‘여자다움’이라는 말이 좋아요. 여자인

best role for So Hyun Kim so far. “It has widened the breadth of my acting. My boss said, ‘See? wasn’t I right?’ after the tour because I didn’t accept the offer immediately. I learned so much from doing this piece. The role had a great depth to it, and I was able to see the stag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bove all, I learned so much as an actress.” Everyone knows about the great reviews that Kim is getting for “The Last Empress”. There was a flood of acclamation about the sublime performance and the excellent skills.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her effort.

“The next piece awaiting is ‘Mozart’. The rehearsal will soon commence, and it will be performed for two months starting from June 10. I had a short break after ‘The Last Empress’ and I will be busy again.” She called herself a workaholic. She seeks to hear that she is ‘really trying hard’ from her audience. This is also what she is stressing to her students, as she is currently teaching them in college in addition to acting.

“I told them that we should all try our best. I also told them to enjoy and take advantage of their study time because they are lucky to be able to learn about musicals, whereas I had never had the chance to do so.” As a professor, Kim made her students perform one great piece per semester. Those pieces included the famous “Mamma Mia”, “Grease”, and “Les Miserables”. “I have chosen good pieces on purpose. I asked my students to put forth their greatest passion. The outcome was not important. I wanted them learn how important it is to be true to their roles and how precious the stage is. By doing so, they would

까 보호받고, 여자니까 일을 덜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꾸는 그런 여
 자다움어요. 잘 가꾸고 유지해서 평생 고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쁜 아내, 예쁜 엄마, 예쁜 딸, 예
 쁜 사람이고 싶어요.” 어느 방송에서 그녀의 남편이 “아내의 민낯을 본 적이 없다”고 한 말이 생각났
 다. 함께 생활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말에 그녀는 “30초면 충분한 일”이라며 절대 특별한 게 아니라
 고 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 제가 먼저 일어나요. 간단한 기초 메이크업을 하는 데 30초면
 충분해요. 제가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찌다 만나는 사람
 들을 위해 밖에 나갈 때도 곱게 치장하는데, 매일 보고 가장 오랫동안 볼 내 사람들에게 더 깨끗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해 하는 일이에요.
 어차피 한 번인 인생인데 예쁘게 살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녀는 많은 여자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이야기였다.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 안은 조명을 꺼도 빛으로 가득 찼다. 벚꽃 노래를 들으며 스태프들과 웃고 이
 야기 나누던 그녀가 무대 위인 듯 무섭게 집중했다. 데뷔 때부터 바뀌지 않은 긴 생머리와 꼭 어울리
 는 미소가 꽃처럼 예뻐다. 자신의 취향이 유행을 타지 않는 꾸준한 것들이라고 말한 게 떠올랐다. 그
 러고 보니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 음악처럼 고전 작품처럼 창밖
 의 오래된 나무처럼 그렇게 깊이를 더하고 있을 뿐이었다. S

be able to learn that a stage performance will never come back. That, in itself, is a big gain.”
 An actor's effort is 'the consideration for the audience'. The public is often hurt by actors/actresses
 who trust their talents or popularity too much that they do not pay attention to their audience.
 In this respect, Kim is a thoughtful actress who is always sincere toward her audience. She is also
 considerate of herself, as she also knows how to be considerate of others. Her honesty for others
 is possible because consideration underlies everything about her life. "I like being a woman. I am
 not trying to be sexually biased, but I like the significance of 'being a woman'. It's not about being
 protected or working less because I am a woman, but instead it is about enhancing what I have
 without giving it up. I want to take good care of myself and stay beautiful for the rest of my life. I
 want to be a beautiful wife, a beautiful mother, a beautiful daughter, and a beautiful person."
 The studio was filled with light even with the lighting off throughout the shooting. She was
 chatting and laughing with the staff while listening to the cherry blossom song one minute, and
 she was keenly focused as if it was a stage the next minute. Her perfect smile and her long, straight
 hair have not changed since her debut, and she appeared as pretty as a flower. She once said to me
 that her taste is set on ordinary things that last regardless of the trends. If you think about it, she
 has always been there. She has just added depth similar to the timeless classical music, all-time
 masterpieces, and old trees out the window.

메이크업 최송이(보이드바이박철 02-3443-0999) 헤어 백민지(보이드바이박철) 스타일리스트 이정주
 도움 주신 곳 쿠메(070-8637-0035) 라이(02-516-4088)



아이디얼 예술 작품, 생활 속에 스미다

만질 수도 없이 보기만 했던 예술 작품들이 실용이라는 네임태그를 달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가구와 리빙 소품에 녹아든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는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동시에 공간을 아티스틱하게 업그레이드시켜준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 민트칼라의 페인트는 DE5626 Potted Plant 디에드워드 페인트.



왼쪽 페이지 옷칠 우드 사이드 보드장은 허명욱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도석으로 만들어진 백자는 모두 청송백자, 황현신
작가 작품인 그레이 컵 트레이와 식물 액자 프레임은 챔터원 토기 화가는
현우 디자인 소장품. 오른쪽 페이지 스틸과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화이트 반달이
장식장은 박보미 작가 작품, 접이식 펜던트 조명은 최명주 작가 작품으로
MM디자인, 각이 진 백자 볼은 이기조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파티션으로 사용된 나뭇잎 패턴 벽지는 현우디자인.

서로 다른 소재로 '색'다르게 연출된 수납장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수납장은 실용은 물론이고 장식적으로도 훌륭한 예술품이 된다.
전통의 감성을 담은 젊은 작가들의 현대적인 수납장에는 언제나 그렇듯 화이트가 숨어 있기에 면밀히 살펴보는 재미를 더한다.
모던한 외관에 전통 칠 방식을 더하거나 상상치 못한 소재로 전통의 외형을 살리며 이중적인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무던하고도 예지가 넘쳐흐르는 책상과 의자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는 데 반치고 쓰는 책상책상과 앉을 때 등을 기대는 기구인 의자椅子에서는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때론 명상과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티테이블로 활용해 차나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나무 소재로 작가만의 선과 색이 돋보이는 작품 같은 제품들이 시선을 빼앗는다.



왼쪽 페이지 벽걸이 화병은 모더니크 메종, 조명과 월넛 테이블이 일체로 된 테이블과 체어 모두 이상민 작가와 신현호 작가 작품으로 큐리어스랩, 백자 캔들 홀더 모두 김윤지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집 모양 백자 호롱은 엘스토어, 숲 속 패턴 벽지는 현우디자인, 굵 있는 볼과 백자 저그 모두 이정미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월넛 4단 선반장은 양웅걸 작가 작품, 우드 미니 캔들 홀더는 송범기 작가 작품으로 Breaktime Kit, 사각 수목 트레이는 이선영 작가 작품으로 데카르트, 나뭇가지 모양의 북 선반은 소은명 작가 작품. 오른쪽 페이지 월넛 행어는 박하수 작가 작품, 자적나무와 에폭시 수지 그리고 오그자로 만들어진 의자와 테이블은 기와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으로 광철안 작가, 금속 촛대와 화기, 볼 모두 김윤진 작가와 권중모 작가 작품으로 Haäm, 선반 위 저그와 그레이 금속 선반은 송범기 작가 작품으로 Breaktime Kit.



공간에 아티스틱한 불을 밝혀주는 조명

해 질 녘 창문턱 너머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나면 조명의 아늑함으로 감성의 불을 켤 시간이다. 조명은 외형으로 보이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불을 켤 때의 분위기가 더욱 중요한 만큼 조명 갖의 색감과 소재 역시 중요하다. 한지 등의 다양한 소재와 패턴의 조명 갖과 더불어 조명 보디에 다양한 기능을 부착시킨 멀티 조명이 보는 이를 설레게 한다.



왼쪽 페이지 플로어 스탠드는 김은학 작가 작품으로 리참 새가 프린트된 커튼은 몽시느, 플로어 스탠드는 김은학 작가 작품으로 리참, 양면 배색 쿠션은 빌라토브, 베이지 쿠션은 키티버니포니, 포엣(poet) 스파는 원컬렉션으로 보에, 세라믹 커피잔은 조연에 작가 작품으로 엘스토어, 굵 있는 페인팅 접시와 컵은 모두 이선영 작가 작품으로 데카르트, 굵이 우드 스톨은 조병주 작가 작품, 스트라이프 플라스틱 러그는 파멜리나 by 빌라토브, 옷걸 마감 벽걸이는 수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선반은 물론 길이 장식까지 부착되어 있는 오크 스탠드 조명은 스튜디오 울앤울, 한지 소재 유유자적 블라인드는 김해신 작가 작품, 화이트 도자기 선인장 오브제는 이해진 작가 작품, 세라믹 컵은 arita by 빌라토브, 페인팅 세라믹 컵과 미니 잔, 패턴 트레이 모두 이선영 작가 작품으로 데카르트, 자개 장식된 우드 콘솔은 박하수 작가 작품, 아카폴코 체어는 보에, 스트라이프 패턴의 쿠션은 현우디자인, 화이트 플랜드 스탠드는 리빈

피고 지는 꽃에 드리워진 또 다른 생명의 향기

여름을 맞이하기 전 봄을 떠나보내며 아쉬움에 피어난 봄 단풍의 아련한 색감들이 절묘한 무리를 이루며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고즈넉한 선암사에서 만난 초여름의 생기 속에 드리워진 설화수의 맑은 기운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백옥의 맑은 기운을 피부 깊이 전하다

부드럽게 조각된 승선교 아래로 흐르는 맑은 냇물과 맑은 기운의 결정체인 백옥의 기백과 힘을 가득 담은 설안팍이 마치 한 폭의 풍경처럼 어우러진다. 옥이 가진 탁월한 손상회복력과 정화력을 설화수만의 제이드스피어™(Jadesphere™) 기술로 피부에 고스란히 전달한다. 마음의 편안함을 되찾아주는 텍스처와 향을 품은 채 밤사이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며 숨 쉬는 보호막을 만들어준다.



600년 선암매의 깊은 생명력을 마주하다

고령의 선암매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며 돌고 도는 윤회의 시간 속에서 맑고 강인하게 피어난다.
봄, 절정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낸 선암매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을 알기에 더욱 애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꽃의 색이 유난히 붉고 향기가 좋은 선암매는 천연기념물 제488호로 지정되어 매화 찾아
유랑을 떠나는 이들에게 설렘과 더불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전해준다.



길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한 폭의 예술로 담다

모던한 색채와 단아한 선으로 완성된 설화수의 화점도 리미티드 에디션은
윤조에센스와 퍼펙팅쿠션 위에 꽃을 피웠다. 현대 민화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화점도를 브랜드 대표 제품에 담아 표현한 것.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담은 매화 걸로 사람의 전령사인
나비가 찾아드는 조화로운 모습 안에서 예술적 가치와 평화로운 기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잘 익은 매실 하나로 건강나다 Stay fit with well-ripened plums

매실의 계절이다. 동글동글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매실 하나가 갖고 있는 영양과 효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배로 높고 깊다.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하고도 영양 풍부한 매실 요리 3품. 무릎을 탁 칠 만큼 그 맛이 일품이다.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유려한 도자의 선에 작가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 만든 유리 도자기는 양유원 작가 작품.

아이들 위한 간식 및 전채요리로 일품 매실청과일샐러드와 스무디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의 입맛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재료 바로 매실이다. 달콤한 맛이 강한 매실청이 단박에 아이들의 미감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플레인 요거트에 매실청을 넣어주면 간단하게 샐러드 소스 탄생. 우유에 매실청을 넣어 잘 섞어주면 인스턴트보다 빠르게 매실 스무디가 완성된다.

Sugared Plums, Fruit Salad and Smoothie

Plums are good for weaning the appetite of children from instant food to natural food. The sweet taste of sugared plums instantly entices their taste buds. Simply mix sugared plums with plain yogurt and create a salad dressing. You can easily make your own plum smoothie by mixing sugared plums with milk.



매실청 이야기

5~6월에 제철을 맞는 매실을 청으로 만들어놓으면 두고두고 유용한 음식 재료로 그리고 차와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북 영천과 경남 하동, 전남 광양, 순천, 해남 일대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생매실을 쪄서 씨를 뺀 후 매실과 설탕의 비율을 1:1로 하여 깨끗한 용기에 담아 한 달 정도 재워둔다. 이때 밑에 가라앉은 설탕을 잘 섞어주는 것이 맛있는 매실청을 담그는 노영희 푸드 아티스트의 포인트. 피로 회복과 해독 작용에 탁월하며 소화를 돕는 매실의 영특함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The Story of Sugared Plums

If you preserve plums in sugar while they are in season between the months of May and June, it will serve as a great addition for food, tea, and medicine all year round. You can purchase fresh Korea-grown plums from Yeongcheon, Gyeongbuk, Hadong of Gyeongnam, Gwangyang, Suncheon, or Haenam of Jeonnam. Break them in half in order to remove the seeds. Then, mix equal parts of plums and sugar in a clean container, and let it cure for about a month. Food Artist Young Hee Noh points out that it is important to mix the sugar thoroughly before it sinks to the bottom of the container in order to make more delicious sugared plums. It is great for relieving fatigue and detoxifying the body, and you can stay healthy all summer as plums help with digestion.

아삭하고도 쫄깃 경쾌한 식감의 잔치 매실장아찌 오징어무침

아삭아삭, 소리마저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매실 장아찌의 식감을 그대로 살려 만든 오징어 무침은 어른들을 위한 애프터디저는 물론 안주 요리로도 손색없다. 잘게 채썰어 삶은 오징어를 얼음물에 담가두면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작은 크기로 썬 매실 장아찌와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얼음물에서 건져낸 오징어와 함께 무쳐내면 간단하게 완성된다.

Salted Plums and Seasoned Squid

Seasoned squid with the mouth-watering and crunchy salted plums makes a great appetizer and side dish for adults. You can make the squid chewy by dipping the sliced and boiled squid in ice water. Simply mix the chopped salted plums, sesame oil, and salt sauce with the squid straight from the ice water.



든든한 한 끼로도
모자람이 없는 품미
매실고추장소스 대하구이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포만감 두둑, 영양 만점인 대하와 매실의 만남.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대하를 매실 장아찌의 매콤달콤한 맛이 개운하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대하와 소화를 돕는 매실,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요리가 또 있을까.

King Prawn with Plum and Hot Pepper Paste Sauce

King prawn is easy to prepare. This delicious and nutritious food is also a perfect match with plums. The sweet and spicy salted plums neutralize the fishy odor of the prawn. What would be better than eating king prawn that lowers cholesterol and plums that help with digestion?

매실고추장소스 대하구이 King Prawn with Plum and Hot Pepper Paste Sauce

재료 싱싱한 대하, 매실 고추장 소스(고추장·매실청 1큰술씩, 마늘즙 1/2작은술, 생강즙 약간, 진간장 1작은술), 매실 장아찌, 실파 조금

만드는 법

- 1 대하 등껍질에 가위집을 낸 후 칼로 등껍질을 잘라 반으로 가른다.
- 2 살과 등껍질 사이에 꼬치 막대기를 꽂아 편편한 모양으로 형태를 잡아준다.
- 3 예열 후 기름을 두른 팬에 대하의 살 부분이 팬 바닥에 닿도록 하여 충분히 구워준다.
- 4 구운 대하에 매실 고추장 소스를 듬뿍 발라 다시 한 번 살짝 구워준다.
- 5 실파와 채썬 매실 장아찌를 대하 위에 장식한다.

Ingredients Fresh king prawns, plum and hot pepper paste sauce (1 tablespoon each of hot pepper paste and sugared plums, ½ teaspoon of garlic juice, a little bit of ginger juice, 1 teaspoon of soy sauce), salted pepper, and green onion

Recipe

- 1 Cut through the back of the king prawns with a pair of kitchen shears and slice them in half with a knife.
- 2 Pierce the prawns with a skewer in order to keep them flat.
- 3 Preheat the pan with oil and cook thoroughly with the prawns' meat side on the pan.
- 4 Spread an ample amount of plum and hot pepper paste sauce over the pan-fried prawns and pan-fry them one more time for a little bit.
- 5 Garnish with sliced green onion and salted plums, and then serve.



시간의 경계를 무색케 하는 천년 고도로의 여행

Gyeongju & Kyoto

경주 & 교토

도시이지만 도시 같지 않으며 사계절 봄비는 관광지이지만 고즈넉한 문화유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갖고 있다.
경주와 교토는 갈 때마다 변화하는 풍경과 감동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토포이미지



통일신라 시대의 이형 석탑으로
국보 20호인 다보탑.



우지(宇治)시에 있는 사원인 평등원



사적8호인 경주 동궁과 월지 그리고 유서 깊은 양반 마을인 양동 민속마을.

전통 기옥 거리인 산센자카 거리와 금박을 입힌 3층 누각의 간카쿠지.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만났던 그곳은 그저 고루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었고, 교복을 입은 소녀소년들에게 답답했던 학교생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일탈의 수학 여행지였을 뿐이었다. 어른이 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하나하나 눈으로 곱씹으며 느끼게 된, 경이로운 문화유산과 놀라운 역사의 깊이 그리고 사무치도록 눈부신 풍광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주는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나 푸른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유기체와도 같은 곳이다. 1000년 동안 이어진 신라 왕국의 흔적을 발길 닿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경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세상으로의 탐험이 시작된다. 이러한 천년 고도 경주와 닮은 곳이 일본에도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교토는 794년 간무 천황이 국경 쇠신의 명분 아래 나라로부터 도움을 옮겨 와 헤이안쿄平安京라 이름 붙인 이래로 1869년 도쿄로 천도하기 전까지, 즉 헤이안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 초반에 이르는 1100여 년 간 일본의 수도였다. 인구는 150만에 불과하지만 역사는 교토에 2000여 개의 사찰과 독특한 단아함을 비롯해, 전통문화를 남기며 일본의 정신적 수도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유산을 많이 품고 있어 두 도시 모두 관광지로 빈잡하지만, 견고하게 쌓인 시간의 지층에서 뿜어 나오는 강인함 앞에서 자연스레 경건해지는 사색의 여행지이기도 하다.

The place that one has seen in textbooks as a child was just an outdated page of history. It was barely realized back then that Gyeongju has a magnificent cultural heritage, an amazing depth of history, and an extremely beautiful scenery. A city such as Gyeongju can be likened to a person who breathes together with nature. From the moment one steps into Gyeongju, one can witness at every corner the imprint of the Silla Empire that had existed for a thousand years, and the exploration of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begins. There is a place in Japan that resembles the old capital of Gyeongju. The widely popular Kyoto was the capital of Japan for 1,100 years from 794 when Emperor Kanmu moved the capital here from Nara in order to refresh the administration. The emperor named it Heiankyo on 1869 when the capital was moved to Tokyo, or from the Era of Heian to the Era of Meiji. Its population is only 1.5 million, but history revealed that Kyoto also has approximately 2,000 temples. Kyoto is considered as the cultural capital of Japan due to its unique elegance and traditional culture. With many cultural heritage, both cities are crowded with tourists, but they are also great for meditation as people are naturally awed by their strength of firmly piled strata of time.



경주 엑스포공원에 위치한 경주타워에 올라가면 보문이 한눈에 보인다.



교토의 상징으로 화창한 날이면 멀리 오사카와 나라까지 내다보이는 교토 타워.

절과 기와집, 능과 충, 탑과 박물관... 경주와 교토는 고고학적, 역사적, 과학적, 건축학적 가치를 가진 세계문화유산을 품고 있기에 성수기, 비수기의 구분 없이 많은 이들로 북적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길 따라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고즈넉한 사찰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울음소리만이 존재하는 숲 속, 걷기 좋은 또는 자전거 타기 좋은 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봄이 되면 두 도시 모두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로 그야말로 장관의 잔치를 이룬다. 벚꽃이 발그레하게 피어나는 무렵, 경주 반월성 뒤편의 벚꽃 숲과 보문 호수 주변은 멀리서 대충만 봐도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보는 이의 마음을 들었다 놔다 하는 마력을 갖고 있다. 또 좁은 하천과 함께 100년을 훌쩍 넘긴 목조 건물이 골목을 가득 채운 교토 기온거리와 철학의 길 역시 끝없이 길게 늘어진 벚꽃나무로 마치 벚꽃 터널 속을 지나는 듯하다.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상투적인 어구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봄날의 화려한 풍경에 마음을 뺏기고 나면 경이로움을 간직한 문화유산들이 하나둘씩 마음 속에 각인되기 시작한다. 민족 예술로 승화시킨 불교 예술의 종교적 취향과 서역 세계의 조화미를 볼 수 있는 불국사와 신라인의 지혜를 대표하는 석굴암, 첨성대가 살아 숨 쉬는 경주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17개 문화유산을 비롯, 일본 중요 문화재의 20퍼센트가 몰려 있는 교토로의 여행, 언제나 옳은 현답과도 같은 여행이다. S

Gyeongju and Kyoto embrace a number of world cultural heritage with their archaeological, historical, scientific, and architectural values. They often attract many people during peak and off-peak seasons. However, if one walks outside the common tourist spots, there are several temples, forests, and trails perfect for hikers and bicycles. The cities are beautiful all year round, but the views of the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are breathtaking every spring. During this time, the cherry blossom forest and the Bomun Lake area behind Banwol Castle of Gyeongju magically entice the viewers, thereby bringing out their acclamation even from a distance. Kion Street and the Path of Philosophy, which are filled with wooden buildings, are a hundred years old, and the narrow stream also creates an endless tunnel of cherry blossoms every spring. Once entered by the splendor of spring, which can only be described by this picture-perfect view, one will certainly embrace the magnificence of the cultural heritage. It is always advisable to choose the destination of the trip to either Gyeongju for its Bulguksa Temple, where one can observe the harmony among the religious background of Buddhist art, western influence, Seokguram, and Cheomseongdae representing the wisdom of Silla, or Kyoto for its 17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and 20% of Japan's major cultural assets.



격이 다른 솔루션으로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성 피부를 완성하다

옛 문인들은 문방에서 종이, 붓, 먹, 베틀을 빗삼아 마음을 기다듬었고, 현대의 남성들은 설화수 맨을 빗삼아
활력과 부드러움을 풀어넣어 피부의 흐트러짐을 기다듬는다. 거칠고 메말랐던 남성 피부에 격이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설화수 맨을 소개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본윤에센스 Inner Charging Serum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은 남성 피부에 자생력을
강화시켜주는 정양단과 활력을 부여해주는 인삼 추출물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 있는 맥문동 추출물이 노화의 징후를
근본부터 케어해준다. 장인의 감성을 더한 금속 소재와
남성의 어깨 라인을 상징하는 디자인은 품격 있는 감성까지
전달한다. 140ml, 주름 개선과 미백 기능성 제품.

How to Use 스킨 기능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세안
또는 면도 후 적당량을 덜어 얼굴 인쪽에서 바깥쪽으로
땀을 다지듯 부드럽게 눌러 흡수시킨다.



왼쪽 페이지 도자 문구 세트는
권성은 작가 작품, 아이보리
색상의 플러스 네이처 한지
노트는 김현주 작가 작품,
대나무를 형상화한 실버 컬러
펜은 윤석철 작가 작품으로
모두 KODF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백자로 된 전통
인주는 낙낙 by 첩터원 백자
타원형 펜 트레이는 권성은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본윤 유액
Skin Reinforcing Emulsion

남성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 인해 지친 피부를 케어하는 산자나무 열매 추출물이 포함된 안티에이징 유액으로 피부 표면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여 부드럽고 활력 넘치는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90ml,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How to Use** 본윤에센스 사용 후 또는 로션 단계에서 손바닥에 내용물을 1~2회 펴핑하여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퍼 발라준다.

본윤 크림
Age Defying Cream

인삼 씨 오일 성분이 피부 탄력과 방어력을 길러 젊고 힘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영양감 넘치는 풍부한 텍스처가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어 번들거림이나 끈적임 없이 오랫동안 깊은 촉촉함을 부여한다. 40ml, 주름 개선 기능성 크림. **How to Use** 내용물을 1~2회 펴핑하여 손바닥에 취한 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퍼 발라준다.

백자 펜꽃이는 오유리 작가 작품,
백자 풀딩 연필꽃이는 이임경
작가 작품으로 모두 KCDF갤러리,
한지로 된 메모꽃이는 by 지인(지인).



화이트 콘크리트 조명은
비믹스 by KCDF갤러리.



리프레싱클렌징폼
Refreshing Cleansing Foam

세안만 꼼꼼히 해도 남성들의 피부는 개선될 수 있다. 천연 파우더 입자가 부드럽게 작용해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해주는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폼 제품으로, 풍성하고 섬세한 거품이 모공 깊숙이 자리 잡은 노폐물까지 말끔히 제거해준다. 세안 시 생기 가득한 허브 향이 주는 상쾌함 또한 일품이다. 150ml. **How to Use**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을 낸다. 얼굴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클렌징한 후 미온수로 여러 번 헹구낸다.

릴렉싱 UV 프로텍터
Relaxing UV Protector

봄부터 강해지기 시작한 자외선은 남성들의 피부를 더욱 거칠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런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끈적임 없이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선크림으로, 뛰어난 자외선 차단 효과(SPF50+, PA+++로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뿐 아니라, 마치현 추출물이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해준다. 50ml, 자외선 차단 기능성 제품. **How to Use**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한다. 손바닥에 적정량을 취해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광대뼈와 콧등 등은 덧발라도 좋다.



한지로 된 단청 카드는
미츠 by 해브빈서울.



설화수 맨 아름다움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입견과 편견을 깬 아름다움은 남성들에게 생기와 활력 그리고 젊음을 선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 강인함보다 내면의 균형 있는 자기관리를 추구하는 남성들을 위한 화장품, 바로 설화수 맨이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대한 설화수 맨에 함유된 정양단은 3000가지 한방 원료 중 남성 피부 재생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순수한 국산 원료 다섯 가지(송절, 황금, 오가피, 건강, 영지)를 수많은 실험을 통해 엄선하여 완성하였다. 또한 안동소주를 넣고 6시간 이상 찌는 주증酒蒸 포제법을 적용하여 원료가 지닌 효능을 극대화하였다. 솔향, 침향, 백단향이 어우러진 깊고 풍부한 우디 향을 바탕으로 오리엔탈 계열의 모던함을 더해 완성한 설화수 맨의 향취는 흔들림 없는 품격을 전하고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선사한다. S

사용 순서 : 리프레싱클렌징폼 → 본윤에센스 → 본윤유액 → 본윤크림 → 릴렉싱UV프로텍터

Sulwhasoo Men Beauty is not exclusive to women, as it also brings vitality, energy, and youth to men as well. Sulwhasoo Men is a skincare line that pursues an internally balanced self-management rather than the external strength. The Jeongyangdan ingredient of Sulwhasoo Men expands the value pursued by Sulwhasoo, and it has been integrated with five local ingredients from Korea, namely, pine nodes, purslane, acanthopanax, dried ginger, and ganoderma lucidum. These have been carefully selected from approximately 3,000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through numerous tests to help with the natural regeneration of men's skin. The efficacies of the ingredients have been maximized with the Alcohol Steamed Process™, where they are steamed for 6 or more hours with Andong Soju. With the addition of oriental innovation to the rich and deep woody scent that combines pine, aloeswood, and white sandalwood, the fragrance of Sulwhasoo Men epitomizes unwavering dignity, generosity, and tranquility at heart.

Skincare Step: Refreshing Cleansing Foam → Inner Charging Serum → Skin Reinforcing Emulsion → Age Defying Cream → Relaxing UV Protector

싱그러운 기운과 맑은 아름다움을 전하다

길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담아 전하다

베스트셀러 윤조에센스와 퍼펙팅쿠션에 화집도를 담아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하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길하고 평화로운 기운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화집도는 우리 삶 속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행복, 기쁨, 풍요에 대한 소망들을 꽃, 과일, 조충, 동물 등의 매개체를 통해 조화롭고 아름답게 담아낸 그림으로 예부터 왕실은 물론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행복과 평화로움을 기원하며 소장해왔다. 설화수는 국내외 고객들이 설화수에 보내주는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로 작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화집도를 브랜드 대표 제품에 담았다. 은은하고 기품 있는 향기를 지녀 격조 높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매화'에 상서롭고 화목한 기운을 전하는 전령으로 사랑받는 '나비'가 찾아드는 조화로운 모습이 한 폭의 예술 작품 같은 제품 패키지를 완성했다. 설화수 리미티드 에디션은 5월부터 백화점 설화수 매장서 한정 판매된다. 퍼펙팅쿠션 리미티드 에디션 15g×2, 6만원대/ 윤조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 120ml, 15만원대



밤사이 맑고 깨끗한 설안靨顏을 만들다

설화수가 백옥의 기운으로 밤사이 피부를 활성화시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 맑은 피부로 바꾸어주는 수면팩 '설안靨'을 출시한다. 한방 고서에서 옥은 피부를 정화하는 보석이자, 예로부터 건강한 삶을 선사하는 보석, 고결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이렇듯 맑은 기운의 정수인 옥 가운데에서도 진귀한 백옥을 원료로 한 설안靨은 설화수만의 독자적인 제이드스피어™(Jadesphere™) 기술로 둥근 캡슐 속에 백옥 파우더를 채워 넣어, 밤사이 옥의 효능 성분이 피부 속에 미세하고 깊게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설안靨은 미세먼지, 공해 등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밤사이 피부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을 흡착하여 다음 날 세안 시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화된 피부를 선사한다. 이를 통해 낮 동안 지속적으로 손상된 피부가 밤사이 촉촉하고 매끄러우면서 맑은 빛이 나는 '설안靨'으로 거듭나게 된다. 80ml, 8만5000원대



예비 신부들과 함께한 자정미백에센스 브라이덜 뷰티 클래스

지난 4월 8일 설화수는 예비 신부들과 함께 자정미백에센스 브라이덜 뷰티 클래스를 개최했다. 도산대로에 새롭게 오픈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웰컴 포토서비스를 시작으로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캠페인 모델인 정혜영과 함께하는 뷰티 토크, 자정미백에센스 프레젠테이션 및 뷰티 리추얼 시연, 볼륨 브라이팅 웨딩 메이크업 쇼, 케이터링 서비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도슨트 투어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브라이덜 뷰티 클래스의 진행은 <설화수> 매거진 인터뷰이로도 등장했던 최현정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뷰티 클래스는 자정미백에센스의 효능과 더불어 피부 관리와 웨딩 메이크업 등 예비 신부들에게 꼭 필요한 뷰티 팁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예비 신부들은 자정미백에센스의 차별화된 미백 효능인 볼륨 브라이팅을 오롯이 느끼며 설화수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를 체험한 뜻깊은 하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볼륨 브라이팅, 새로운 브라이팅의 시대를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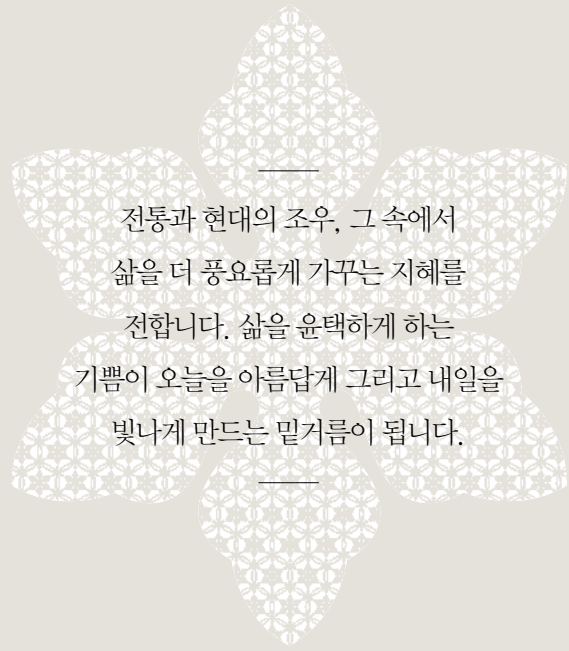
복합적인 미백 고민, 볼륨 브라이팅으로 해결하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와 함께 1차원적인 미백을 뛰어넘는 볼륨 브라이팅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독자적인 백삼 미백 성분이 피부 속을 탄탄하게 채우고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 해주어 짙어지는 칙칙함으로 인한 피부 그늘화 현상을 개선해줍니다. 온종일 맑고 투명한 빛으로 차오르는 피부,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의 볼륨 브라이팅으로 마음에 드러운 피부 고민까지 환하게 밝히세요.

“칙칙함, 잡티, 불균일한 피부톤 등 미백 고민은 복합적인데... 멜라닌 케어 하나만으론 힘들죠. 이제 볼륨 브라이팅 하세요. 피부가 맑고 투명하게 빛나니까 내일이 더 기대돼요.”

- 배우 정혜영 -

Sulwhasoo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시간

컵 케 이 크

컵 모양의 틀에 반죽을 넣어 구워낸 작은 크기의 컵케이크는 커피와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디저트다. 다양한 재료와 알록달록 화려한 비주얼로 컵케이크 하나면 눈과 입이 모두 즐겁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구산아베이커리 참고도서 디저트수첩(우듬지)

지난해 말, 미국 드라마 <섹스앤더시티>의 두 주인공인 캐리와 미란다가 뉴욕 맨해튼 거리를 활보하며 맛있게 먹던 컵케이크 전문점이 한국에 상륙했을 때, 온 디저트 업계가 들썩거릴 정도로 컵케이크의 인기가 뜨거웠다. 컵케이크는 작고 앙증맞은 크기 때문에 '페어리(Fairy) 케이크'라고 불리기도 하며,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세계 각지 사람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받는 디저트이다.

달콤한 디저트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왔다. 다양한 풍미로 사람들의 입안에 즐거움을 주고 있는 디저트는 오래전에는 오직 부유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으며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설탕 생산의 발전은 설탕 가격을 합리화했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이용하여 각종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디저트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컵케이크는 1740년부터 레시피가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하니 꽤 오래된 디저트 중의 하나이다. 디저트는 달콤함으로 식사 후 입안의 뒷맛을 없애는 효과를 내는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저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테이블

을 치운다'는 뜻의 프랑스어인 'Desservir'에서 유래했다. 식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먹는 음식으로, 전체 음식의 만족도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해 메인 요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메인 메뉴가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디저트가 훌륭하면 모든 것이 만회되기도 하니 디저트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컵 케 이 크 의 다 양 한 맛 과 모 양 에 빠 지 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엄마와 자녀가 함께 베이킹을 하며 컵케이크를 만드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아이들의 생일 파티 장면에서도 큰 케이크와 함께 등장한다. 컵케이크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변화무쌍함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다.

또 컵케이크의 위에 듬뿍 올라간 올라간 크림을 프로스팅(Frosting : 버터나 생크림, 우유, 달걀, 파우더 슈가 등 다양한 향미를 혼합시켜 크림 상태로 만든 것으로, 입히는 것에 붙을 만큼 두껍고 바르기 쉽게



1



2



3



4



5



6



컵 케이크 만들기

재료 바닐라 시트(버터 45g, 설탕 60g, 꿀 20g, 달걀 90g, 우유 50g, 사워크림 30g, 박력분 96g, 베이킹파우더 3/4작은술), 프로스팅(크림치즈 170g, 버터 42g, 산딸기잼 90g, 분당 78g)

- 1 버터, 설탕, 꿀을 순서대로 넣으며 휘핑하고 달걀을 나누어 넣으며 휘핑한다(Tip: 한 재료를 한꺼번에 넣지 않는다. 특히 액체 재료는 버터와 분리될 수 있으므로 나누어 넣어주고 상온의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2 1에 가루 재료를 반 넣고 우유와 사워크림을 넣은 후 휘핑하고 다시 남은 가루 재료를 넣어 고르게 섞는다.
- 3 반죽을 여섯 개의 컵 케이크 틀에 나눠 담고 160~170도의 오븐에서 20분간 굽는다.
- 4 크림치즈와 버터를 실온 상태에서 부드럽게 풀어준 후 분당과 산딸기잼을 넣고 휘핑한다.
- 5 식힌 컵케이크 시트 위에 프로스팅을 짜준다.
- 6 자신의 기호에 맞게 장식해 완성한다.

구선아베이커리: 좋은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든 알라메종 구선아 파티시에의 베이커리를 만날 수 있다.(위치: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34 태성빌딩 / 문의: 02-3401-7441)

충분히 부드러워야 한다)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팅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또 그 위에 어떤 데커레이션을 하나에 따라 다양한 맛과 모양이 탄생할 수 있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같은 재료라도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나 실력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컵케이크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컵케이크 만들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컵케이크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시트는 밀가루와 달걀, 버터, 설탕 등 최소한의 재료로 만드는 절묘한 균형이다. 프로스팅은 생크림 중량의 10퍼센트의 설탕을 넣고 거품을 내면 부드러운 생크림을 만들 수 있다.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생크림보다는 버터크림을 만들어 장식한다. 설탕을 줄이면 컵케이크의 단맛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고, 몸에 좋은 채소 등 건강 재료를 넣으면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그만이다.

컵케이크는 커피나 차 종류와 잘 어울린다. 기름기를 덜어주고 단맛을 중화시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의외로 와인도 좋은 궁합을 이루는데 특히 스파클링 와인이 잘 어울린다. 샴페인의 경우에는 단맛이 적은 엑스트라 드라이(Extra Dry)를 추천한다.

특별한 날 정성스러운 선물로,
때로는 우울한 날 달콤한 위로로

축하할 일이 있는 날, 케이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 이럴 때 컵케이크는 커다란 홀케이크보다 준비하기 쉽고 간단하게 똑딱 만들 수 있다. 케이크 스탠드 위에 여러 개를 올려놓으면 홀케이크 못지않게 파티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살릴 수 있다. 또 정성을 담은 선물로 건네기에도 좋다. 다채로운 재료의 조화, 계량의 비법, 맛의 밸런스와 디자인적 감각까지 균형 잡힌 컵케이크는 예술 작품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

또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든 날 컬러풀한 프로스팅이 올라간 컵케이크는 눈으로 한 번 그리고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며 맛으로 마음을 보듬어주는 잔잔한 위로가 되어주기도 한다. 서양 사람들에게 컵케이크가 '솔푸드'로 불리기도 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일 것이다.

만들기도 쉽고 보기에도 예쁜 컵케이크로 달콤함이 필요한 순간, 재빠르게 달달함을 채워보면 좋겠다. 계절의 싱그러움 기운을 담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줄 테니, S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선비 가구 From traditional to modern furniture of the scholars

간결한 아름다움으로 현대적 감각에 가장 가까운 전통 가구로 일컬어지는 사방탁자.
가는 기둥과 나무판자(층널)만으로도 남다른 조형미를 지닌 사방탁자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존재감으로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에디터 윤연숙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김경원 작가

옛 선비들의 사랑방에 항상 자리하던 대표적인 사방탁자는 문방구류 文房具類와 서책書冊, 가벼운 화병花瓶 등을 올려놓는 네모반듯한 탁자를 말하는데, 이들 기물들을 실내 분위기에 맞게 배치하며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사방이 틈이 있고 네 기둥과 널빤지로 이루어진 모양새가 좁은 방에서도 답답함을 주지 않는 한국의 전통적 열린 공간의 감수성을 보여준다. 또 안정적인 구조와 기온 변화에도 틀어지지 않고 사계절을 견디도록 단단하면서도 탄력 있는 나무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한 선조들의 지혜도 담겨 있다. 19세기 만들어진 4층으로 이루어진 사방탁자는 맨 아래층에 두 개의 서랍과 여닫이문이 달린 장을 설치하여 보관의 기능을 더 높였다. 서랍과 장의 문판門板에 달린 꽃 모양 장식의 은혈자물쇠(자물쇠 장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열쇠 구멍만 겉으로 보이는 자물쇠)가 수수한 나뭇결과 어울려 깔끔한 느낌을 더한다. 사방탁자를 미래적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김경원 작가의 <Four Sides>는 직선형의 모던한 선비 가구에 곡선미를 더했다. 작가는 사방탁자의 개방성과 기능성만을 남기고 자유로운 곡선들이 조화를 이루는 장식장을 만들었다. 고주파 벤딩 기법으로 원통형 나무를 만든 뒤 창을 내듯 나무를 잘라내 현대적 사방탁자를 완성했다. 원통형 사방탁자는 유기적인 곡선에 의해 보는 각도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의 공간 속 공예품은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다움'이라는 전제 아래 살아 숨 쉬고 있다. 전통 공예와 현대적 디자인의 융합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전한다. S

Sabangtakja, which is always placed in the guesthouse (Sarangbang) of the old scholars, refers to a rectangular table that displays stationeries, books, and vase lights on top as decorations. The table has four columns and a board, and it is great for small rooms. Furthermore, it represents the sentiments for open spaces in Korea. It is also great for modern spaces with its natural wooden texture, concise structure, and golden ratio for visual beauty. It even reflects the wisdom of the Korean ancestors, who used durable and flexible wood to build stable structures that could endure all four seasons without being distorted from varying temperatures. During the 19th century, the four-story Sabangtakja has two drawers and doors at the bottom for more private storage spaces. The drawers and doors with the floral Eunhyeol locks, which showed only the keyhole on the outside with the lock hidden inside, looked great with the humble wooden patterns. Artist Kyungwon Kim's "Four Sides", which has re-interpreted Sabangtakja by modern standards, has added the beauty of curvature to the straight-lined furniture of the scholars. He has kept the openness and functionality of Sabangtakja, and created a display unit with plenty of curved designs. The marriage of traditional craftsmanship and modern designs also presented new styles.



<사방탁자(四方卓子). 나무.
132.8×34×36.4cm, 19세기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Four Sides>. 김경원.
plywood, carving, painting,
500×500×1810mm, 2009



아름다움을 즐기는 자세

텍스타일 디자이너 장응복

한국적인 소재와 전통 모티프에 특유의 감성을 버무려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장응복 디자이너가 내놓은 애장품은 조선 시대의 다완(차사발)이다. 담백한 색감과 단아한 자태를 품은 다완을 통해 그는 선조들이 가졌던 미를 즐기는 도량(度量)을 되돌아본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한국적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라이프스타일에 접목시킨 아름답고 실용적인 패브릭, 가구, 공간 등을 아우르는 텍스타일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장응복 선생. '모노컬렉션'이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그가 올해는 안건의 <몽유도원도>에서 착안한 몽환적인 이미지의 도원몽(Peach Blossom Dream), 동양철학의 음양 사상과 동양화의 산수풍경을 독특한 시각으로 재구성한 산수(Mountain-Water), 우리의 단색화에서 영감을 얻은 담(Daam) 등 세 가지 콘셉트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각으로 디자인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이너로서 충분히 느끼고 즐기는 가운데 작업이 표현되고, 그것이 실제로 실용적인 생활, 사람을 위한 물건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일한다. 또 나아가 비스포크(맞춤 제작) 디자인을 통해 일하는 방식에서도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꾀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다.

장응복 선생이 최근 3년 사이 영감을 얻는 중요한 소재는 한국의 도자기. 중국이나 일본의 도자기처럼 요란하거나 좌우대칭이 정확하지 않지만 비대칭과 불균형에서 풀어내는 넉넉한 아름다움,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문양 등에서 또 다른 감동을 느낀다.

“우리나라 도자기가 갖고 있는 선은 매우 유려합니다. 달항아리의 곡선, 분청사기 중에서 침병에 새겨진 국화나 모란 문양 등 제가 30년 동안 한국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일을 해왔지만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도자기를 주제로 한 전시를 두세 번 반복해서 보

고, 도록을 통해서도 들여다보면서 옛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듯 자연스럽게 표현한 선과 문양의 아름다움에 다시금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장응복 선생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 앤티크를 컬렉션하면서 한국의 다완과 마주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먼저 한국의 다완을 알아보고 많은 수량을 구매해 가던 때이다. 그러던 시절, 장응복 선생은 어느 시골 마루 밑에서 옛날 종이에 싸인 다완 터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모두 한꺼번에 구매했다.

“제가 이 다완을 아끼는 이유는 은은한 유백색과 비대칭, 배부른 곡선이 사람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무엇이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많은 다완 중에서도 조용히 좋아하는 것을 가져왔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넉넉한 모양과 자연스러운 조형미를 가졌기에 장응복 선생의 다완이 편안한 아름다움을 발하는 것 같다. 장응복 선생은 자신의 브랜드 모노컬렉션을 통해, 한국적인 요소로 잘 디자인된 것들을 대중화하는 작업과 대량생산의 시도들로 한국적인 디자인과 우리 것이 지금에도 잘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작업에 한국적인 요소를 잘 녹여내는 것도 중요하고, 생산된 한국적인 디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해석해 동시대적인 미를 전할 장응복 선생의 탐미적 시선이 기대된다. S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을 만날 수 있는 1층 부티크.



아시아의 귀한 원료를 담은 약재함을 형상화한 헤리티지룸에서는 설화수 브랜드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다.

아름다움이 영롱하게 빛나는 곳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도산공원 앞 아름다움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하며 새로운 뷰티 여정을 시작한 것. 설화수의 철학과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공간에서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하고 아름다움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은숙

다양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모여 있는 서울 도산대로에 황금빛 브라스(Brass)가 선의 미학을 펼쳐 보이며 내외부를 감싸 안은 건물이 들어섰다. 남다른 조형미와 고귀한 기운을 품은 건물은 국내 단일 뷰티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중 최대 규모와 시설을 품은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봄기운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3월 30일,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설화수를 사랑하는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고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를 처음 마주하면 황금빛 브라스가 건물 내외부를 감싸며 빛을 담아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디자인 콘셉트가 '랜턴(Lantern)'이기 때문이다. 랜턴이 어둠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플래그십 스토어가 아시아 지혜의 미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하고자 하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다. 또 각기 다른 테마가 담긴 층별 공간을 아우르며 과거

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조화로운 미의 여정에 함께하는 느낌을 선사한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아시아인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 네리앤후(Neri&Hu)가 디자인했다. 네리앤후는 건축뿐 아니라, 가구 디자인 등 다방면의 작업을 통해 인정받으며 2006년 <I.D(아이디)> 매거진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주목해야 할 40명의 디자이너이자, 2011년 인사이트 페스티벌 오버를 우승자이다. 또한 2015년에는 메종&오브제 아시아 올해의 디자이너에 선정된 세계적인 디자이너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조화로운 시각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디자이너와의 작업을 통해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조화와 균형의 미를 구현해내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그리고 루프탑 등 총 6개 층으로 구성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브랜드 헤리티지뿐만 아니라 제품과 스페셜

- 1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포함한 모든 설화수 제품을 경험하고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2층 부티크.
- 2 도산 공원을 바라보며 진정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루프톱.
- 3 2층 기프트 서비스 존에서는 정성과 품격을 담은 포장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 4 한방 요소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설화수 밸런스 스파.
- 5 자연을 닮은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우는 향 제품군은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이다.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또 뷰티 카운슬링을 비롯한 도슨트 투어 등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만의 품격 높은 서비스를 통해 홀리스틱 뷰티를 체험할 수 있다.

먼저 1층 '부티크&헤리티지룸(Boutique&Heritage Room)'에서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과 스토리를 담은 헤리티지룸과 시즌별 이슈 상품 및 신상품을 만날 수 있는 부티크가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의 귀한 원료를 담은 약재함을 형상화한 헤리티지룸에서 설화수 브랜드의 세계를 한눈에 경험할 수 있다. 2층 '부티크&기프트 서비스(Boutique&Gift Service)'에서는 설화수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전 제품 체험과 더불어 뷰티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층에 마련된 기프트 서비스 존에서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정성과 품격을 담은 포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혜를 담은 함과 보자기라는 의미로 '지함보첩函襪'과 명명된 설화수 포장 특화 서비스는 지나치게 멋 부리지 않으나 기품을 보여주는 포장 요소 하나하나를 통해 예의를 다하고 복을 비는 정성의 마음을 담아냈다. 쇼핑백과 지함 등으로 구성된 무상 포장 서비스와 명절 선물, 예단 등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보자기로 구성된 유상 포장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 설화수만의 품격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 3층은 '컬처 라운지(Culture Lounge)'로 설화수만의 문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문화 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VIP 고객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VIP 라운지'도 운영한다.

또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설화수만의 원료와 처방이 담긴 스파를 만나볼 수 있다. 지하 1층 '설화수 스파(Sulwhasoo Spa)'에서는 프라이빗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에서 격식과 품격 높은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럭셔리 안티에이징 한방 스파 프로그램을, 지상 4층에 위치한 '설화수 밸런스 스파(Sulwhasoo Balance Spa)'에서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도산공원의 전망을 바라보며 차별화된 집중 케어 서비스

를 통한 캐주얼한 스파를 경험할 수 있다. 최대 3인까지 함께 스파가 가능해 스파 파티를 즐길 수도 있다. 스파 고객에게는 보양차와 계절 스낵이 제공되어 오감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5층은 루프톱(Rooftop)으로 평화로운 도산공원의 정취를 한눈에 담으며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선사한다.

설화수는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하여 플래그십 스토어의 모티프인 랜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랜턴컬렉션을 선보였다. 대표 제품인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을 귀하게 담아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처럼 피부에 건강한 윤기와 고귀한 빛을 선사하는 랜턴컬렉션은 오직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한정 판매한다. 또 오랜 시간 기다림과 정성을 통해 완성되는 궁중비누, 자연을 닮은 설화수의 향이 심신을 다스리고 감성을 일깨우는 향 제품, 한방을 보다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밤 시리즈 등은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으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특별히 만날 수 있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아시아 미의 정수를 전파하고, 뷰티 랜드마크로서 이름 다움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예정이다. 설화수라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S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
운영 시간 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및 설, 추석 당일 휴무)
문의 02-541-9270
스파 예약 안내 Sulwhasoo Spa (B1) 02-541-9272
 Sulwhasoo Balance Spa (4F) 02-541-9273
사이트 www.sulwhasoo.com



5월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회색빛 도시 생활 속에서 자연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자연 모티프 인테리어 소품들로 행복한 나날이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굳이 사용 용도를 정의하지 않아도 보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새와 나뭇잎 패턴의 면과 리넨 티타월은 더결온더문.



저 멀리 아프리카 사막에서 온 듯한 오브제로 Defense World 시리즈의 선인장 도자 장식품은 이해진 작가 작품.



비람 솔솔 들어오는 눈부신 창가에 놓아도 예쁠, 늦은 밤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하는 새 모양 캔들은 달레탄트.

집 안에 가장 빠르게 자연을 들여놓는 방법 중 꽃과 나비 등을 모티프로 한 인테리어 소품만큼 효과적인 것이 또 있을까요. 마치 수채화 같은 느낌을 선사하는 다양한 모티프가 새겨진 인테리어 소품은 집 안 공간을 화사하게 꾸며줍니다. 또한 봄의 절정을 만끽하면서 우리 눈에 자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새입니다. 우리 선인들도 새를 좋아하여 자수는 물론이고 그림과 각종 공예품에 새를 즐겨 사용했더랬죠. 예쁜 색채와 더불어 새가 지닌 의미 때문인데, 그 예로 제비는 수가 겹치는 날(음력 9월 9일)에 강남에 갔다가 수가 겹치는 날(음력 3월 3일)에 돌아오는 새라고 해서 길조吉鳥로 여겨졌습니다. 짧은 다리로 종종걸음을 하며 뛰다가 날렵하게 날아오르는 새들과 한없이 우아하고 신비하며, 고귀하기까지 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집 안 한편에 들여놓는다면 여름이 다가오기 전, 생기 넘치는 신선함을 집 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이승원



마치 붓으로 직접 그린 듯한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옆에 두면 늘 자연과 함께 있는 듯한 세라믹 머그컵은 더결온더문.



귀여운 물속 생명체들이 접시 위에서 신나게 노닌다. 물고기 패턴의 소스 접시는 피쉬스튜디오 by 센트럴포스트.



보기만 해도 상쾌한 향기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듯 솔잎이 핸드프린트된 다포는 전인희 작가 작품으로 수갤러리.



꽃을 심거나 플랜트를 가꿀 때 꼭 필요한 도구들로 플라워 패턴의 가든 툴은 미니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리빈.



과일 볼은 물론 다양한 음식 볼로도 사용 가능한 블루 도트와 나뭇잎 패턴의 도자 접시는 김윤희 작가 작품으로 엘스터어.



고전적인 색깔에 작가의 정성이 오롯이 들어가 있다. 모사에 나전과 옷칠로 마감된 투톤 나비 무늬 벽걸이는 수갤러리.



예쁜 찻잔을 올려놓는 트레이로 사용하거나 허전한 책상 위를 채워줄 장식 오브제로 사용되는 가든 타일은 리빈.



도자로 된 몸체에 뾰족한 모양의 석고 방향제가 함께 장식되었다. '아로마티코'는 이해진 작가 작품.



아이의 동심을 그대로 담았다. 꽃과 해 그리고 푸른 동산이 프린트된 유리잔은 피쉬스튜디오 by 센트럴포스트.

형형색색 무늬로 말해요

컬러풀한 패턴을 가미한 가방과 신발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꾸밈이 시작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파스텔 조의 은은한 색채감과 유니크한 패턴으로 우아함의 향기가 솔솔 흘러나오는 폴리 소재 스카프는 모란당.



가방과 같은 컬러 계열의 구두와 함께 매치해도 좋을 듯, 원색적인 컬러감의 플라워 패턴 코튼백은 스킨그.



신기만 해도 시뻐하게 날아갈 것 같은 파스텔 바이올렛 톤의 플라워 프린트 발레리나 슈즈는 에트로.

한때 '유행'이란 게 대단한 힘을 발휘했던 적이 있었죠. 한 번 유행하면 모두를 휩쓸던 그런 시절.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시대에 이기에 자신의 감각과 기호에 따라 다양한 패턴들이 패션 세계에 존재합니다. 더욱 컬러풀하면서 좀 더 대담한 패턴, 프린트, 문양들이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클래식한 무드가 강하게 묻어나는 체크는 다양한 굵기와 색채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1960년대 유행했던 아트를 연상시키는 기하학 패턴은 시즌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사하고도 화려한 플라워 프린트는 봄부터 매력을 발산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 강한 프린트까지.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이 부담스러워 베이직한 디자인의 옷을 선호한다면 액세서리 하나쯤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컬러풀한 패턴을 가미한 가방과 신발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이승원



영친왕비 봉황문 치마의 금박 부분을 활용한 블루 핀과 영친왕비 흥원삼의 소매 부분을 활용한 레드 핀은 한국문화재단.



테니스를 치고 있는 경쾌한 일러스트가 패턴화 되어있다. 레트로 디자인의 블라우스는 지케로.



얇은 가죽 끈을 감아서 만든 브로치로 여러 개의 색이 만나 멀티컬러 스트라이프로 탄생 신에림 작가 작품으로 엘스토어.



섬세한 세공의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는 브로치는 은 소재와 합성수지로 만들어졌다. 김문주 작가 작품.



아티스틱한 감성을 강하게 엿볼 수 있는 기하학 패턴의 오닉스, 칠보로 만들어진 브로치는 김문주 작가 작품.



클래식한 분위기로 캐주얼은 물론 세미슈트에도 잘 어울린다. 레트로풍의 기하학 패턴의 패브릭 클러치백은 모란당.



컬러풀한 색실을 꼬아 만들어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는 핸드메이드 목걸이로 드레스에 잘 어울린다. 엘스토어.



브랜드 고유의 독특한 컬러 매치와 더불어 트로피컬 무드의 꽃과 새가 프린트된 가죽 크로스 보디백은 에트로.



볼드한 유리 소재 링에 알록달록 플라워 패턴이 새겨진 반지는 노경주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자음단™ 피부 균형을 완성하는 귀한 처방 JAUM Balancing Complex™ – A Precious Formula for the Skin

이상적인 피부 균형을 되찾아주는 설화수만의 고유한 처방이자 원료인 자음단™에는 남다른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다.
설화수의 지혜를 계승하는 다섯 가지 원료의 조합과 가공은 설화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에디터 윤연숙

자음단™은 음의 보충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흐트러지는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조합을 개선하는 설화수만의 고유 처방이자 공통 처방이다. <본초강목>과 <신농본초경> 등 옛 문헌에서 화장품 성분으로 가능한 3000여 가지의 한방 약용식물을 찾고, 수만 번을 실험을 통해 163가지의 성분으로 추린 후, 또다시 30여 가지 원료로 엄선했다. 이후 각각의 약용식물이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 마침내 다섯 가지 최적의 원료인 작약, 연, 옥죽, 백합, 지황을 찾아냈다. 설화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다섯 가지 원료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 옛날 한약을 달일 때의 방법을 통해 10분 단위로 달아보았다. 그렇게 수많은 실험으로 18시간 이하로 달이면 효능이 떨어지고 그 이상 달이면 오히려 성분이 파괴된다는 것을 알아내며, 18시간이라는 최적의 달임 시간을 찾아내어 자음단™을 탄생시켰다. 자음단™은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꿔주고 부족해진 기운을 채워주어 영양, 생기, 투명도, 탄력, 자생력 등 다섯 가지 총체적인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준다. 더불어 자음단™에 적용된 최신 가공 기술 프렉스트랙트 프로세스™(PREXtract Process™)는 자음단™의 유효 성분을 더욱 강화시켜 건강한 피부에 서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원료가 가진 본연의 효능을 최적으로 끌어올려 오롯이 피부에 전달하는 남다른 놀라움은 오직 설화수이기에 가능한 경험이다. S

JAUM Balancing Complex™ is Sulwhasoo's original and popular formula that replenishes the yin energy to restore the balance that is easily lost with age. Approximately 3,000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herbs, such as the "Bonchogangmok" and "Sinnongbonchogyong", may be used for cosmetic purposes as identified in the old texts, and 163 of them were selected after thousands of tests. Among these medicinal herbs, 30 of them were strictly selected for further studying. By testing the efficacies of each medicinal herb, Sulwhasoo finally discovered the five optimum ingredients, namely, Peony, Sacred Lotus, Solomon's Seal, White Lily, and Rehmannia. Sulwhasoo did not stop there and applied the traditional method of brewing while testing the formula every 10 minutes, so the five ingredients can create synergies through 'Harmony and Balance'. After numerous tests, Sulwhasoo discovered that the efficacies did not reach their peak when brewed less than 18 hours, and became ineffective when brewed longer. Sulwhasoo, thus, found that 18 hours is the best brewing time to give birth to JAUM Balancing Complex™. It leaves the skin smooth and moisturized, and replenishes its energy deficiency in order to restore the skin's balance through the five aspects, namely, nutrition, vitality, clarity, resilience, and regeneration. Meanwhile, PREXtract Process™, which is the latest processing technology applied to JAUM Balancing Complex™, further enhances its active ingredients to demonstrate the radiant beauty that naturally diffuses from healthy skin. The unique and amazing experience of enhancing the natural efficacies of these ingredients for the perfect skincare regimen is only available through Sulwhasoo.



<Sulwhasoo> 독자 선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뷰티 패키지 론칭을 기념하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업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8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뷰티 케어와 휴식을 함께 즐긴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두 가지 뷰티 패키지를 선보인다.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홀리스틱 뷰티 브랜드 설화수의 제품 견본도 받을 수 있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준비한 특별한 뷰티 패키지를 소개한다.

Shop til' You Drop 패키지 : 슈퍼리어 객실에서의 1박과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의 시그너처 안티에이징 라인 '자음생' 견본 5종 및 신세계백화점 쿠폰북이 증정된다. 또한, 다음 날 아침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더 카페'에서 여유로운 조식 뷔페(2인 기준)를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투숙객은 온천수가 들어가는 테라피 풀과 유아 풀이 포함된 호텔 내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27만9000원부터(세금 및 봉사료 별도).

Beauty Styling 패키지 : 주니어 스위트 객실에서의 1박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이 운영하는 정샘물 인스피레이션에서 헤어 펌 혹은 염색, 메이크업, 젤 네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1인 기준/편도 차량 서비스 제공). 또한, 호텔 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및 사우나도 이용 가능(2인 기준)하며, 호텔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왕복 무료 차량 서비스가 제공된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투숙객은 온천수가 들어가는 테라피 풀과 유아 풀이 포함된 호텔 내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73만9000원부터(세금 및 봉사료 별도).

뮤지컬 <삼총사>



뮤지컬 <삼총사>가 원작의 탄탄함에 화려한 캐스팅을 입고 돌아왔다. 작품의 묘미는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무대와 삼총사들이 선보이는 검술 장면이다. 여기에 브라이언 아담스의 'All For Love'를 메인 테마로 웅장한 음악들이 귀를 즐겁게한다. **일시** ~6월 26일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문의 02-764-7857

뮤지컬 <모차르트>



천재적 음악가의 인간적 고뇌, 자기 자신과의 갈등 등 깊이 있는 주제를 다양한 주변 인물과의 관계 안에서 드라마로 풀어낸 탁월한 극본과 클래식하면서도 대중적인 뮤지컬 넘버, 화려한 무대 미술이 조화로운 뮤지컬 대작이다. **일시** 6월 10일~8월 7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1577-6478

코믹소란극 <서툰 사람들>



지난 2022년 초연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서툰 사람들>은 돈보다 집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서툰 도둑 장덕배와 훔쳐 갈 물건이 없어 미안해하는 집주인 유화이가 벌이는 허룻밤 소동을 그린 코믹 연극이다. 연기 내용을 착실히 쌓아온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일시** ~5월 29일 **장소** 코엑스 아트홀 문의 02-3672-0900



스위스 최고의 오케스트라, 루체른 심포니 첫 내한공연

스위스 클래식 수도는 루체른이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스위스의 중세 도시 루체른이 과거의 영화榮華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진행형의 도시로 거듭난 건 도시에 면면히 흐르는 클래식 덕분이다.

실내악의 명장 루돌프 바움가르트너가 이끈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도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루체른의 클래식 문화를 살찌운 스위스 최고의 오케스트라 루체른 심포니(Luzerner Sinfonieorchester)가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첫 내한의 지휘봉은 루체른 심포니의 음악감독 제임스 개피건이 잡는다. 서울시향과 2011년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2012년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지휘하며 4년 만의 내한이다. 개피건은 1979년 미국 태생으로 수많은 오케스트라와의 객원 지휘로 갈고 닦은 자신만의 비기를 루체른 심포니와 함께 한국에서 풀어놓는다. 루체른 심포니 협연 자에는 '조지아의 신성' 카타야 부니아티쉬빌리가 함께한다. 부니아티쉬빌리의 음악성에 대해 영국 클래식 FM은 '젊은 마르타 아르헤리치'로 리뷰했으며, 독일 권 최고의 음악상인 에코(Echo) 클래식상 2012년 신인상을 수상했다. 평단의 리뷰는 간혹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이 시대 유럽이 주목하는 가장 핫한 피아니스트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연을 직접 지켜볼 관객의 몫이다. **일시** 6월 24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책 <오늘부터 가벼워지는 삶>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의 아들인 심리학 20년 연구를 집대성한 작품으로 열등감과 비교의식,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고단한 현대인들을 위해 자신의 심리학 연구를 깊이 있게 풀어놓았다. 이 책이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것이다. **지은이** 기시미 이치로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전시 <장 폴 고티에 전>



장 폴 고티에는 정식 디자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피에르 가르탱에게 발탁돼 패션계에 입문했다. 이번 전시는 장 폴 고티에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감을 받아온 주제를 중심으로 일곱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일시** ~6월 30일 **장소**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문의 02-724-6963

전시 <COLOR YOUR LIFE-색, 다른 공간 이야기>



'색, 다른 공간 이야기'는 주제하에 펼쳐지는 <컬러 유 어 라이프>전은 색(Color)에 유리, 천, 가죽, 금속 등 다양한 소재와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특별한 오브제로 탄생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로, 총 여섯 명의 아티스트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8월 21일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궁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주는 고급 클렌징 비누
100g×2 | 42,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 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은 유자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 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알감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지산체SM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주고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ml | 90,000원대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가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영의본초염플
명인SM 성분이 피부 본연의 방어력을 강화해주는 고농축 염플
7ml×5 | 20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깨끗하고 환한 안색을 선사하는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스크럽젤
백상 파우더가 포함된 젤 포물라가 맑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스크럽 젤
100ml | 55,000원대

자정수
피부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미백 효과를 끌어올려주는 젤 타입 미백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수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맑은 안색을 선사해주는 미백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집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트리트먼트
쿨링 자카 어플리케이터와 매끄러운 텍스처가 눈가를 환하게 밝혀주는 미백 아이트리트먼트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미백 스크림
40ml | 75,000원대

어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밀하게 가꿔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대

어민마스크
젤레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겨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어민 라인

자음생진분유
인삼 중차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인삼 기능성 성분이 도뫄하고 함입하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인삼 결정체가 노화의 징후를 다스리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30,000원대

자음생/자어진 라인

수울크림
시원한 자자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울선크림 (SPF 50+ / PA+++)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수분 선크림
50ml | 55,000원대

수울미스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수분 스프레이
100ml | 42,000원대

수울 라인

동백윤모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의 고농축 부속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00ml | 35,000원대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초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 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바디 & 헤어

진설수
적층 성분이 즉각 흡수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층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일전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피부 방어력을 높이고 생기를 일깨우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적층의 생명력으로 눈가 피부를 탄력 있게 다스리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새벽의 흔적을 이겨내고 한결 같은 젊음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심과 홍심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리서치 토털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설안팩
백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 85,000원대

어윤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옥윤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청운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는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ml | 42,000원대

예술마사지크림
자신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대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일 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150ml | 30,000원대

분운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분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분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 오일 성분의 고보습 인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진설 라인

다함설라인
설안팩 80ml | 85,000원대
어윤팩 120ml | 52,000원대
옥윤팩 150ml | 42,000원대
청운수딩팩 80ml | 42,000원대
예술마사지크림 180ml | 75,000원대

옴션 라인

리프레싱클렌징폼 150ml | 30,000원대
분운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분운유액 90ml | 52,000원대
분운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UV프로텍터 (SPF 50+ / PA+++) 50ml | 40,000원대

MEN

진설수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60ml | 450,000원대
다함설크림 60ml | 650,000원대

쿠션

● 11호 퍼일 핑크 ● 13호 라이트 핑크 ● 21호 미디엄 핑크 ● 23호 미디엄 베이지 ● 25호 닷 베이지 ● 33호 디크 베이지

퍼펙팅쿠션 (SPF 50+ / PA+++)
탄탄한 커버력으로 잡티 없이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15g×2 | 60,000원대 (리필 25,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묵은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파운데이션
15g×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 1호 라이트 핑크 ● 2호 라이트 퍼플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수분, 피부 힘·톤·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CC

● 1호 핑크 베이지 ● 2호 미디엄 베이지 ● 3호 살구 베이지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채담 메이크업

● 1호 핑크 베이지 ● 2호 미디엄 베이지 ● 3호 살구 베이지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감싸듯 부드럽게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 1호 화사한 색 ● 2호 자연스러운 색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화이트닝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3,000원대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성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꿔주는 파우더
30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진설 율메이크업크림 (SPF 32 / PA+++)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밀착되는 프리미엄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율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율팩트
영양 파우더가 화사함과 스킨케어 바론 두 기능을 표현해주는 파우더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블루미네이팅

● 21호 미디엄 핑크 ● 23호 미디엄 베이지 ● C2호 미디엄 핑크(카베) ● C2호 미디엄 베이지(카베)

블루미네이팅파운데이션 (SPF 35 / PA++)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파우더 팩트
30g | 80,000원대

블루미너스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블루미너스 팩트 (SPF 32 / PA+++)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파우더 팩트
10g | 65,000원대 (리필 48,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 1호 핑크 하모니 ● 2호 코랄 하모니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혈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립

● 1호 에프리트르 세럼 ● 2호 블러셔 세럼 ● 3호 플라워 핑크 ● 4호 로즈 레드 ● 5호 블러셔 코랄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성분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4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주어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자음단™이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속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2명)

JW메리어트에서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1박 무료 숙박권(2인 기준을 2명께 드립니다. (숙박권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6년 6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
- 당첨자 발표 7/8월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6년 3/4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자정미백에센스(4명)

- 강여진 서울 구로구 도림로
- 안영미 울산 남구 동산로
- 정향숙 충남 예산군 예산읍
- 추혜순 경기 안산시 단원구

뮤지컬 <마타하리> 관람권(4명)

- 권수영 인천 연수구 선학로
- 권하나 서울 강남구 수서동
- 김보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 송금자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016년 3/4월호 당첨자 선물은 5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으로 비할 데 없는 윤기가 찬란히 빛나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면 피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피부 본연의 윤기를 끌어올려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고른 다섯 가지 성분으로 완성한 자음단™이 피부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 피부 균형이 잡힌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이제, 제대로 된 첫 단계 스킨케어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윤기를 경험하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6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 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디큐브백화점 거제점 055-680-014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품격 있는 삶(8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新 공간을 보다(22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건너다(28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6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한국의 멋(80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설화애장(82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읽다(84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집 안 단장(88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몸 단장(90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설화 히스토리(92p)	매우만족	7	6	5	4	3	2	1	매우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88p 참조)

- 설화수 윤조에센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신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 롯데 잠실 면세점 02-3213-3865~6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9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김포 면세점 02-2661-3216
- 제주 신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김해공항 면세점 051-970-2743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청주 국제공항 면세점 043-213-3500
- 대전 신우 면세점 대전 유성구 온천로 33
- 수원 양곡로 면세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 청주 중원 면세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114

